

목회자와 그 가정에도 치유가 필요하다!

릭 워렌 목사아들 자살 후 문제 제기

최근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 목사의 아들 매튜(27세)가 정신질환과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아오다 자살한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위로와 격려의 글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목적이 이끄는 삶, 아들은 못 구했다”는 자조적인 글이나 비방의 글도 제법 있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아들을 자살로 잃었다면 그렇게 까지 부모를 탓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유명 목사이고 대형교회를 일궈낸 목회자이기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세상의 비판을 받았다.

같은 아픔과 고난을 겪는데 목회자나 아니냐에 따라 교회와 세상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또한 목회자가 유명인이나 아니냐, 일반 목회자냐 특수 목회자냐와 상관없이 목회자와 그 가정이 겪는 그들만의 독특한 아픔이 있고 치유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



목회자 가족들은 마치 ‘유리어항 속에 물고기’처럼 생활하게 된다. 이런 삶은 목회자 자녀들의 정체성을 혼돈시키기도 한다.

한 아이’(Perfect Kid)로 불려진다. 사택에서의 삶은 마치 ‘유리어항 속에 물고기’처럼 사생활이 노출되고, 목회자 자녀라는 딱지가 붙여져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부모가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자녀들은 다른 부모와는 다르게 모든 방면에 탁월하고 모범적인 완벽한 자녀가 되라고 강요당하기도 한다.

목회자 자녀가 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다. 부모가 목회자가 되는 순간부터 자녀들은 목회자 자녀가 되며 목회자 자녀로서 자라게 된다. 그때부터 교인들의 호기심으로 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이 목회자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이처럼 목회자 자녀들은 교인들의 지나친 관심과 높은 기대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목회자 부모와 교회로부터 건강하게 분리되지 못하는 경계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목회자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애정적인 유대(친밀감)인 가족 응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가족체계 내에서 경험하는 가족의 권력, 구조, 역할, 규칙 등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자율성의 정도(융통성)인 가족 적응력이 제한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목회자 가정은 목회자를 교인 또는 교회와 결연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목회자 자녀들도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을

(3면으로 계속)

성령의 사역과 성품에 근거해야

리더십저널, 헨리 블랙커비의 ‘영적 리더십’ 중 부당한 영향력 소개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는 영향력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는 모든 리더들에게 중요한 질문이다. 영향력은 다양한 곳에서 올 수 있지만 어떤 출처는 상당히 미심쩍은 것도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얻어진 영향력이라면 참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헨리 블랙커비는 그의 책 “영적 리더십”에서 소개한 영향력의 부당한 출처에 대해서 세 가지를 통해 리더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경고하고 있다.

1. 지위

과거 세대 사람들은 대체로 권위나 영향력을 지위에 연결시켰다. 리더가 가진 지위 때문에 저절로 존경의 대상이 된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시대에는 영적인 문제라면 무조건 목사를 믿었고 당연히 존경을 표했다. 그래서 리더들은 자신이 받기 원하는 존경을 얻기 위해 높은 지위나 직책에 오르려 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교육수준이 낮았던 예전 사람들처럼 직함이나 지위에 감동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대개 목사가 해당 지역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교인들의 평균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낮은 경우도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교인들은 성경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거나,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성경적 지식을 얻는 방법도 알고 있다. 교인들이 무턱대고 얽매지 목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때는 지났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가 가진 지위가 반드시 존경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지위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영적인 리더십은 성령의 사역과 성품에 근거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2. 파워

많은 정치인들이 힘이 총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국민들을 이끌었다. 그러나 점점 국민들이 그러한 리더들을 추종하는 것을 거부하자 독재형 리더들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 이다. 독불장군형 리더들은 노동운동을 짓밟으며 오만하게 직원들을 이끌었다. 하지만 요즘 직장인들은 언제라도 직장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 억지로 회사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회사방침이 개인적 가치관과 맞기에 자신의 선택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3면으로 계속)



2면

수준 낮은 교육·인맥 부족이 원인



3면

그룹의 기본 방침을 정하라



7면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를 김만형 목사(친구들교회)



16면

은혜의 땅 예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유경옥 전도사 (수곡미술선교회 회장)

2013 KAPCQ
SUMMER RETREAT

전교인 여름수련회

●기간 2013년 6월 27일(목)–29일(토)
●장소 허드슨벨리 리조트

하나님 마음에합한 사람이 되자
(행 13:21–23)



강사

한기홍 목사

• 남가주은혜한인교회 담임
• Grace Mission 대학교 이사장



미주 한인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박규성
교회전화 718.886.4040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시론

언어의 격을 높일 때이다



원종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말과 글은 표정이나 몸짓과 함께 우리의 일상에서 통용되는 중요한 표현 도구이자 소통의 기본 수단이다. 우리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언어라 한다. 언어가 다르면 서로 통하지 않기에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말과 글을 배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통하려는 마음에서 자기나라의 말을 배울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다른 언어들도 배운다. 결국 갖난아가 응얼거리며 말을 배우고, 말을 배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며 글을 배우는 것도, 알고 보면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한 효과적인 자기 표현법을 익혀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언어는 배울 뿐 아니라 다듬을 줄 알아야 한다. 말을 한다고 다 말이 아니며 글을 쓴다고 다 글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연스레 말과 글을 다듬는다. 스스로 깊이 생각하며 다듬기도 하지만 스승에게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기도 한다. 거친 말과 글에 비하여 잘 다듬은 언어는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뿐 아니라 자기의 주장이나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케 할 수 있다. 말과 글 다듬는 일은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지 않는다. 학교졸업이 언어 다듬는 일의 마침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과 글 다듬는 일은, 분명히 말하지만, 평생 작업이다. 나이가 들고 사회적 신분이 생길수록 더욱 노력하여 그에 걸맞는 말과 글의 격을 갖추어야 한다. 간혹 그러지 못해 나타나는 사회 곳곳의 추한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래서 말과 글은 인격의 그릇이라는 것이며, 언어는 인격을 다듬듯 계속 다듬는 것이다. 더욱이 중요한 자리에서 책임 있는 말을 할 때일수록 한번 더 다듬은 글로 말할 줄 알아야 한다.

표정과 몸짓은 말과 글이라는 밑그림에 생생하게 색깔을 칠하는 작업과 같다. 말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표정과 몸짓이 하고자 하는 말의 본말을 결정할 때가 허다하다. 같은 말이라도 조음 미소지으며 말할 때와 인상을 찌푸리며 큰 몸동작을 반복할 때 전달받는 느낌은 크게 다르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억양이 더 크게 전달된다는 연구결과가 뒷받침하며, 낯선 외국어를 말하는 외국인들을 대할 때의 경우도 그렇다. 비록 우리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지만 그 표정과 몸짓, 목소리의 크기 등으로 말의 내용을 짐작하기도 한다. 자고로 인격자는 자신의 말과 글을 꾸준히 다듬을 뿐 아니라, 다듬은 말과 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게 여긴다. 살아갈수록 얼굴에서 인격이 묻어나온다는 말이 그것이다.

아무리 잘 다듬은 언어도 현대의 익명성 앞에 무너질 때가 많다. 익명으로 자기 생각을 전하는 기회가 늘어날수록 언어는 성숙함과 거리가 먼 곳으로 간다. 그래서 자기이름으로는 할 수 없는 저급언어를 쉽게 표출한다. 가상세계 뿐 아니라 현실세계 속에서도 군중의 이름이나 혹은 익명이라는 벽에 숨어 지나친 욕설이나 의도적인 왜곡, 심지어 악의 가득한 언어로 도배하기도 한다. 그래서 잘 다듬은 인격자의 언어일수록 실명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실명언어는 개인적으로 인격을 다듬는 좋은 훈련이 되며, 공동체적으로는 좋은 관계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만일 이름을 밝히고 할 수 없는 이야기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서도 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뒤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앞에서 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앞에서 하지 않아야 할 말은 뒤에서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 글, 몸짓, 표정 등 언어 사용에는 짧은 순간이라도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 먼저 쌀에서 돌을 걸러내듯 밖으로 드러내기 전에 우리의 언어는 다시 다듬어져야 하며 상대방 마음에 도달하기 전에 또 다시 한 번 점검되어야 한다. 서투른 논리나 약한 명분보다는 거칠고 격한 언어가 공동체를 아프게 한다. 언어의 격을 높이면 자신의 격 역시 높아지게 되어있다. 지금은 '격'을 높일 때이다.

수준 낮은 교육·인맥 부족이 원인

이코노미스트, 이슬람 성직자들 급진주의로 빠지는 이유 보도

최근 이슬람 수니파의 영향력 있는 성직자 유수프 알카라다위가 시아 파인 헤즈볼라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저항하는 성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아라비야가 2일 보도했다. 카라다위는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종교집회에서 "대부분이 수니파 무슬림인 시리아 반군을 도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란은 계속해서 병력과 무기를 공급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돕고 있는데 우리는 왜 가만히 있느냐"고 반문한 뒤 "사탄의 무리"(헤즈볼라 지칭)도 시리아에서 수니파 반군 학살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런던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영국 이슬람교도에게 테러를 독려하는 영상이 넘쳐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영국의 급진적 이슬람단체 성직자인 안젤 초우더리의 설교 영상은 108편이 검색됐으며, '무슬림이 성전을 벌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최근 종교의 특성상, 신앙심과 평화, 화합을 가르쳐야 하는 이슬람 성직자들이 왜 극단의 성전주의자들이 되는 지에 대해서 보도했다(Green glass ceilings: How Muslim clerics turn jihadist).

신앙심 깊고 평화를 사랑하는 무슬림들이 초강경 보수주의자가 되고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학자들과 정치가들의 오랜 관심의 주제이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의 니엘슨(Rich Nielsen) 교수는 이슬람의 초강경 보수주의 종파인 살라파주의(Salafi)의 현대 성직자 91명과 이들의 제자와 스승 379명의 책과 파타(fatwas 이슬람율령) 그리고 전기를 조사했다. 니엘슨 교수는 이슬람 성직자들의 급진주의의 이면에 있는 주요 요인은 가난이나 스승의 사상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학문과 인맥(network)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슬람 성직자들이 국가의 기관에서 성직자(imam)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능력은 인맥에 달려 있다. 니엘슨 교수가 조사한 91명의 성직자들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출신인데, 이 두 나라는 모두 오래 동안 국가가 종교기관을 통제해온 나라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성직자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정치적 상황을 바꾸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니엘슨 교수의 연구를 통해 학계에 좋은 인맥을 갖고 있는 성직자들 가운데 성전주의자(jihadist)로 빠지는 비율은 2-3%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못한 성직자들 가운데에서

는 50%가 급진주의로 빠진다는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다. 니엘슨 교수는 급진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성직자들이 국가의 관직을 피하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증명했다.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성직자들은 대중에게 자신을 드러



무슬림 청년 2명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우려는 고조되고 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울위치 칼부림 테러의 범인 중 한 명인 나이 지리아예 흑인 아테블라요(28)는 2001년 이슬람 개종 후 과격주의자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성직자들의 설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고 두둔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대학가와 청년 커뮤니티를 무대로 이슬람 급진 이념을 전파하는 이슬람 활동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차단할 뾰족한 방도가 없어서 영국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대학생인권단체 '스튜던트 라이츠'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영국 대학

“외로운 늑대형”...성전주의자로 온라인 장악 이슬람사원 마련 본래사역하게 하는 것 대안

나야 하는데, 투쟁을 선택하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등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위험이 높지만 대신 자신의 선명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니엘슨 교수의 연구는 급진주의적인 성직자의 양상을 막아야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제 국가는 급진주의적 성직자들을 색출해 감옥에 보내기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들에게 좋은 이슬람 사원을 마련해 종교 본래의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영국의 '외로운 늑대형' 테러 범죄의 배경으로 떠오른 급진 이슬람성직자의 설교활동차단에 고심하고 있다. 바로 대학과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히 확산하는 급진세력의 포교활동이 영국사회에 뿌리를 내린 이슬람 청년세대에 서구사회에 대한 반감을 조장해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최근 런던 울위치에서 발생한 영국 군인피살 사건도 이런 장치를 통해 급진이념에 빠저든 영국 국적의

알려졌다.

그는 테러 연루 혐의로 금지단체로 지정된 알 무자히룬의 지도자 안젤 초우더리의 강연장을 따라다녔으며 2007년에는 초우더리가 조직한 거리시위에도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종 직후에는 최근 레바논으로 거주지를 옮긴 급진 성직자 오마 바크리 무하마드의 강연도 즐겨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테블라요의 정신적 스승으로 알려진 초우더리는 사건 이후 BBC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테블라요를 “나무랄 데 없는 성품의 소유자였다”

에서 개최된 이슬람 성직자의 강연은 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슬람 과격주의 운동의 대부분을 불리는 아부 우사마 타하비를 비롯해 피크리와 하이탐 알 하다드, 그리스계 이슬람 운동가인 함자 초르치스 등이 현재 영국에서 활동 중인 대표적인 이슬람 활동가들이다. 타하비는 과거 강연에서 빈 라덴을 추앙하고, 이슬람 배교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과격한 논리를 펼쳐 논란을 빚기도 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SUNDESERTSOLAR

Contractors Lic# 983528

선 데저트 솔라에서

태양열 인턴 학생들의 도움으로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Let our solar students install your FREE SOLAR SYSTEM!

교회&비영리단체 (Churches&Non-profits)

FREE!
*무료 설치

상업용 (Commercial)

Almost free!
거의 무료로 해드립니다

*귀하는 디자인과 시 허가증만 내시면 저희들은 재료와 노동을 제공합니다
Customer pays for Design and City Permit (We cover material and Labor)

선 데저트 솔라는
LA에서 태양열 기술 및 설치를 선도하는 업체입니다.

전화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323) 683-6733 | English (213) 364-7972

그룹의 기본 방침을 정하라

스몰그룹닷컴, 말 많은 소그룹 멤버 다루는 원칙 소개

소그룹을 진행하다보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모든 소그룹원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성숙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빌 도나휴는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을 통해서 소그룹 안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요소에 대해서 리더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특별히 소그룹 모임의 특성상 많은 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말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의 상처와 아픔이 소그룹의 성장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 말이 많은 소그룹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처음에는 사소하고 정다운 수다로 시작된 것이 후에는 말의 홍수가 되어 모임을 방해할 수 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다른 누군가가 주의를 기울여 개입하지 않으면 모임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그룹의 기본 방침을 정하라
- 말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말하기 전에는 이미 말한 사람이 다시 말할 수 없게 하라
- 누군가 말하는 도중에 말을 끊지 못하게 하라
- 모든 사람이 말할 기회를 갖도록 체계적으로 그룹을 운영하라

-말이 많은 사람들의 나눔에 고마움을 표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기 원한다고 개인적으로 말하라

-토론 중에 리더가 개입하여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로 조심스럽게 돌리라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요령

이 사람과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라. 그래서 왜 모임에서 대화를 지배하려 하는지 그 숨은 동기를 찾아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단호하



면서도 다정하게 대한다. 먼저 그가 그룹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말하라. 그 사람의 문제에 대면함과 동시에 그 사람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다른 사람들을 토론에 참여시키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라.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자신의 말을 마칠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말로 맺어줄 것을 제안한다.

빌 도나휴 목사는 리더가 소그룹 안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할 때 지켜야 할 원칙 두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는 문제의 해결책이 문제

당사자가 성장하고 온전해지도록 돕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해결책은 그룹 전체가 성장하고 온전해지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만든 어떤 해결책도 100%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살피는 것이다. 성령께 의지하여 서로를 돌아보며 소그룹원들의 성장을 위해 문제를 대할 때 더 좋은 해결방법들이 떠오를 것이며 이것이 더욱 건강한 소그룹의 성장을 이루어 낼 것이다.

성령의 사역과 성품에 근거해야

〈1면에서 계속〉

이런 직원들에게 권위와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아까운 인재를 경쟁사에 빼앗기는 결과만 낳게 된다.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도 이러한 파워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영적 독재자말로 가장 폭압적일 수 있다. 조직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흔들어도 안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은 더욱 안 될 일이다.

물론 하나님은 리더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렇다고 리

더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리더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유도할 위험이 있다.

3. 성격

사람들은 순전히 카리스마와 호감 가는 성격 때문에 리더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리더의 인기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전부도 아니다. 리더는 매력 이상의 것, 즉 능력과 방향 감각을 증명해야 한다.

콜린스와 포라스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에서 “비전을 품은 회사에는 반드시 위대한 카리스

마직 리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신화”라고 결론지으며, 오히려 “비전을 품은 회사에서 비전을 품은 카리스마적 리더는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목사가 떠난 후 교인 수가 확 줄거나 CEO가 사임한 후 회사의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그 조직이 리더의 성격에 기초해 세워졌다는 징후일 수 있다. 이 원리는 사역자를 새로 구하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가능하다.

성격만 보고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우는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

적절한 경계 세워 가족과 가정 보호해야

릭 워렌 목사아들 자살 후 문제 제기

〈1면에서 계속〉

따라서 목회자는 언제나 목회자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가족은 자신들이 교인이나 목회 다음이며 2등급 취급을 받는다고 느낀다. 또한 목회자 가족들이 목회나 교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이나 목회와 무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한한다. 그렇기에 목회자 부부의 갈등, 즉 목회자의 일중독과 사모의 우울증 등이 증상으로 나타나고, 목회자 자녀는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기에 목말라 하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겪기도 한다.

목회자는 자신의 능력이나 영성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목회(교인수와 건물, 헌금 등)에 대한 평가를 모든 교인들로부터 받는다고 느낀다. 목회자의 설교나 영적 영향력보다는 외적인 부흥이나 구체적 숫자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항상 교인들에 의해 평가받는다는 것을 의식할 때, 자신도 모르게 일중독처럼 가시적이고 결과지향적인 목회를 향해 과도하게 맹목적으로 질주하게 된다. 문제는 성공지향적 열심목회는 결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자신이 만족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목회자 부부의 갈등, 즉 목회자의 일중독과 사모의 우울증 등이 증상으로 나타나고, 목회자 자녀는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기에 목말라하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겪기도 한다.

높은 연봉의 목회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목회자의 가정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다. 목회자와 그 가족은 경제력이나 가족의 필요와는 무관하게 영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상)과 삶에서 충족되지 않는 현실적인 부분들(건강보험, 연금, 교육비 등)을 채워가야 하는 실제적인 문제 사이에서 고통을 받는

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거나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현실과 이상 사이, 실제적인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의 불일치로 인한 목회자 가족들은 참 자기(true self)를 찾기 위해 힘든 몸부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목회자 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까지 목회자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지나쳐야 하는 독특한 과정이 있다. 모호한 경계, 가족응집력과 가족적 응력의 약화, 그리고 실제적인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의 불일치 등으로 심리적 증상들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목회적 환경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위치에 목회자 가정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필자의 상담에 비추어보면 목회자 자녀들의 불안과 정체성의 혼란, 일중독과 친밀감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오해하는 목회자, 남편 목회자를 의심하는 편집증세와 강

으로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목회자 부모는 분명하고도 탄력적인 경계선을 만들어가야 한다. 새벽기도나 모든 교회 모임 등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부모가 이러한 울타리를 제공해 줄 때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이기 전에 가정의 일원으로서, 한 사람과 신앙인으로서 느끼며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목회자는 목회를 위해서라도 배우자와 자녀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족 간의 좋은 유대감을 유지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수록 목회에서 더 영향력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아가려면 목회자 부부와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목회자 가족이 서로의 영적, 정서적,

pastor's kid=perfect kid 사생활 노출 등 희생양

목회자, 대화소통 등 배우자 자녀와 친밀관계 노력

는 것을 의식할 때, 자신도 모르게 일중독처럼 가시적이고 결과지향적인 목회를 향해 과도하게 맹목적으로 질주하게 된다. 문제는 성공지향적 열심목회는 결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자신이 만족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목회자 부부의 갈등, 즉 목회자의 일중독과 사모의 우울증 등이 증상으로 나타나고, 목회자 자녀는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기에 목말라하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겪기도 한다.

높은 연봉의 목회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목회자의 가정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다. 목회자와 그 가족은 경제력이나 가족의 필요와는 무관하게 영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상)과 삶에서 충족되지 않는 현실적인 부분들(건강보험, 연금, 교육비 등)을 채워가야 하는 실제적인 문제 사이에서 고통을 받는

박적 태도 등과 함께 우울증을 앓는 사모 등 치유가 필요한 목회자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목회자 가정은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해 갈 것인가?

첫째로 목회자 가정은 적절한 경계를 세워 가족과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목사이기 전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모에게는 목사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남편이 필요하다. 자녀들에게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

목회자 부모는 자녀가 받는 스트레스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목회자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능력 이상을 요구하거나 때때보다 더 성숙해야 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환경적으로 또는 가정적

성적 필요를 채워 줄 시간을 할애할 때 가족 응집력과 적응성을 배양할 수 있다.

셋째로 따뜻한 의사소통(대화)을 위해 훈련해야 한다. 목회자 자녀들이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부모와 친밀감과 유연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것은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다. 때로는 그냥 말없이 함께하는 것도 중요한 대화이며, 짧은 자투리 시간에 한두 마디, 문자 메시지, 이메일, 간단한 통화, 음성 녹음 등을 통해 대화의 채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목회자 부부, 부모가 서로 간에 또한 자녀들과의 약속을 중요한 목회로 여기고, 교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가족을 섬기며 겸손하게 다가간다면 대화 시간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수준 낮은 교육·인맥 부족이 원인

〈2면에서 계속〉

영국 내무부는 이와 관련 이슬람 과격 이념의 확산에 맞서 인터넷 사이트의 테러 관련 영상물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급진 이슬람 성직자의 방송 인터뷰나 출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영국 시민들이 느

끼는 이슬람포비아는 상당하다. 영국 시민들이 이슬람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교 이민자들이 이주국 주민에게 괴롭힘을 받으면 인터넷 상의 유투브나 SNS를 통해 유포되는 이슬람 급진 성직자들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아 또 다른 극단주의자들이 생기게 된다. 이처럼 종교 간 증오와 반목은 인류평화를 위협하고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을 해친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기피해야 할 것은 극단주의다. 이런 의미에서 ‘테러와 전쟁’의 출발점은 인간 이성을 회복하는 일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반드시 요구된다.

Midwest Summer Special Global Leadership Seminar

June 13, 2013, 9:00 am- 5:00 pm, June 14, 9:00 am- 12:00 pm



Rev. Shemchenko
Russia Christian Leader
"Russia Christianity today and Tomorrow"
"러시아 기독교의 오늘과 미래"



Dr. Bob Fu
President of China Aid, IFPP Director
"Christianity in China and Leadership"
"중국의 기독교 리더십"



Bill Federer IEC President,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American Minute
"Christianity in America and Leadership"
"미국의 기독교 리더십"



Dr. Kum Y. Kim,
President of Midwest Alumni
"Korean Christianity Today and Tomorrow"
Midwest University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의 미래"



Dr. James Song,
President of Midwest University
"Global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총장
"글로벌리더십 개발"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리더십 박사과정 입학문의 손동원 교수 covenant@unitel.co.kr
세계 각국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Seminar

Prof. Sung Joon Kim
(St. Louis University Ph.D Candidate)
Blended Courses - CC 502, CC523
ICA Certificate
June 10-14, 2013



27th Anniversary Graduation Ceremony

June 14, 2013. 3:00 pm



27th Anniversary Midwest Summer Concert

June 14, 2013. 7:00 pm

Register Now !

e-mail to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usa@midwest.edu
(636) 327-4645, St. Louis, Missouri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오래전에 연주회를 갔다가 소프라노의 피아닛시모에 큰 전율을 느끼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드라마틱한 소리에도 감동을 받지만 작고 가늘지만 온 에너지가 집중되어있는 첼사 줄 같은 소리는 더 깊은 감동의 세계로 이끈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그런 소리를 내게 될 때 온 청중은 호흡을 멈추고 연주자에게 끌려가다가 연주자의 긴 호흡을 멈추고 동시에 청중도 깊은 숨을 몰아쉬며 폭포소리와 같은 합성과 함께 우레 같은 박수를 보낸다. 이런 면을 통하여 청중들은 성악가의 대단한 기량을 칭찬한다. 역시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

친구를 알려면 고난에 처해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집안 아저씨가 계셨는데 6.25전쟁 중에 내무서원에게 끌려가게 되었다. 그때 친구는 이 사람은 많은 식구를 거느리는 가장이고 나는 끌려가도 가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 나를 대신 끌어가라고 하여 극적으로 살게 되었다. 친구는 그 후 영영 돌아오지 못했고... 이런 사람이 진실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지 싶다. 이런 친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인생이다. 그러나 우리는 날 위해 죽으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하나님은 때때로 자녀 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원하신다. 본문 대하32:27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이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역사적 큰 수로사업을 이룬 왕이다. 그는 기혼의 샘플을 예루살렘에 끌어드린 터널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산위에 건설된 예루살렘의 식수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큰 성공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결과였다. 우리는 진급하고, 비즈니스가 잘되고, 가정이 평안한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셨기 때문임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가끔 기억날 때,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최고야, 정말 나는 실력이 있어! 나의 타고난 리더십 때문이야 라는 교만의식이 내 마음 저 구석에 파리를 틀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는 솔직한 심정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 볼 때 나도 모르는 교만의식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그 얼마나 많았던가 싶어진다. 소위 잘 나간다고 할 때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형통을 맛보게 하신 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원하신다. 우리는 이런

정황을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통해 교훈 받게 된다. 사람은 특별한 상황을 만날 때 본심을 노출하게 된다. 하나님은 거대한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큰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교만한 말을 내뱉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요청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기적을 베풀어주셨다. 그 후 겨우 39살의 한창 일할 나이에 죽음을 선고 받았다. 그 선고를 받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면서 간구했다.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병에서 고쳐주시길 뿐 아니라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 시켜주신다는 특별한 약속을 하여주셨다. 이런 놀라운 소문이 이웃나라 바벨론에 알려지자 바벨론왕은 축하하기 위해 신하에게 친서와 함께 예물을 보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난 히스기야의 중심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하셨다. 그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병에

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나님만을 칭송하기를 기대하셨다. 그것은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다. 그러나 것처럼 믿음 있는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창고의 보물과 무기를 보여주며 자신의 힘을 자랑했다. 크게 실망하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삶을 무미건조하게 끝나게 하셨다. 모세 역시 그랬다. 무리바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즉시 캔슬시켜 버리셨다. 그 수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렇다면 성도의 마음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 평가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자는 그가 한 일에 상관없이 인생을 끝나게 하시고 또한 남은 삶을 건조하게 섬리하신다. 그런데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푸 / 른 / 초 / 장

노진걸 목사

(홀러튼장로교회)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도로써 처음 순교자인데 그보다 먼저 집사 중에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전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서술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책망했다고 하면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유대인의 완악함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하는 이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을 지적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스데반의 역설적인 모습을 통해 스데반 집사의 죽음 전의 삶, 죽음 때의 모습, 그리고 죽음 후의 모습을 살펴봄으로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행6:8-10).

와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주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 스데반 집사는 죽을 때도 승리하였습니다.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께서 일어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행6:59).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그 옆에 서신 것을 본 스데반 집사(행6:56)는 마지막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하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 받게 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믿음과 불신과 죽음에 대한 승리였음이 분명합니다.

3. 스데반 집사는 죽음 후에도 승리자입니다

려고도 하지 않은 품도입니다만 스데반의 죽음은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행11:21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대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흠어진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음 후에도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후에 우리의 죽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파하느냐? 믿게 되느냐? 그것이 승리의 기준이 된다고 믿습니다.

승리자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1-60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 7장 5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 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대신에 이를 갈고 귀를 틀어막고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 그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

사도행전 8장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은 후에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크게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되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은 흠어지지 않고 우리끼리만 있기를 좋아해서 예수 모르는 사람을 만나려고도 전도하

스데반 집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았고 죽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활과 용서와 사랑의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죽음 후에도 흠어진 사람들이 전하는 그 결과로 인하여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일에 배 끝나고 삶의 터전으로 가서도 세상적인 욕심 다 버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승리하신 스데반처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다가 승리의 죽음을 맞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메시지가 더욱 더 넓게 퍼져가는 승리의 날을 소원하면서 성령충만, 믿음 충만, 지혜충만 사랑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NJUCA

교육의 특징

- 기독교 교육 이념에 기초한
- 지성(IQ), 감성(EQ), 영성(SQ)교육
- 헌신적인 교사들에 의한 친밀한 학생관리 및 상담
- 특별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한 이타적인 인재 육성
- SAT, TOEFL, 수업을 통한 명문대 진학 준비
- 한식과 중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기숙사 환경

믿고 맡길수 있는 [하나님의 학교]

N.J. United Christian Academy



2013-2014년 신입, 편입생 모집중

- 대상: 6th ~ 12th
- 인원: 각 학년별 약간 명
- 전형: 서류 및 인터뷰
- 개강: 2013년 9월 5일
- 특징: 국제 유학생에게 정식 I-20발급

개교 10주년을 앞두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훌륭한 크리스찬 미래 리더들을 좋은 대학에 많이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6학년 12학년)

www.njuca.org

문의 전화

TEL.(609)954-2900
73 Holmes Mill Rd,
Cream Ridge, NJ 08514
School: (609)738-2121
Korean: (609)758-1177

[하나님의 학교] (저자 신정하 이사장) 책을 사시기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15)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2013년 6월 ‘전통결혼’ 최대 위기의 달! 기도만이 유일한 소망!!

미국의 최상의 판결기관인 연방 대법원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두 가지의 케이스에 집중해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가장 치열한 법정소송에 놓여있는 두가지 법안 케이스들은 다름 아닌 현 미국의 헌법이며 남녀의 전통결혼만 인정하는 DOMA(Defense of Marriage Act - 전통결혼)와 캘리포니아의 Prop.8이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DOMA를 계속 헌법으로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위헌이라고 폐지시킬 것인지, 그리고 2008년 캘리포니아의 52.24%가 넘는 시민들이 투표해 통과시킨 “전통결혼지” 주정부 법안을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 무효화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대법원의 판사들은 사회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듯 보이는 동성애자들과 자유민주당 정치인들을 비롯한 동성애 지지자들의 큰 목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역사와 법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들 또한 동성결혼을 국가적으로 인정할 경우 따라오는 결과와 대가들을 예상할 수 있기에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DOMA가 꼭 지켜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

DOMA라는 연방정부 헌법이 무너지면, 전통적인 남녀만의 결혼이 무너지는 것 뿐만 아니라, 남녀를 구분하는 “성(gender)”에 연결되는 모든 성교육들의 비도덕성까지 법적으로 인정하고 정당화되게 된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십대아이들에게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미소녀/소년 성폭행, 학교총기사건, 살인 등의 범죄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어 가정과 사회 국가에 엄청난 혼돈과 깊은 아픔을 주는 것은 시간문제라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몇 번 소개한 황당한 최근의 법안들이 바로 그 증거이며 지금도 자유주의 정치인들에 의해 쏟아지고 있는 비도덕적인 법안들이 바로 그 증거이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공립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이, 신체적인 것으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날 감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허락된다. 남자와 딸과 여자아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공공장소 시설들이 남녀구분없이 함께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된다. 이런 비도덕적이고 아이들의 성적

체성을 무시뜨리는 법안들은 4-5살의 유치원생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적 혼란은 청소년들의 정신적 질환의 급증과 사회의 정신 건강에 해가 될 뿐 아니라 성적체성으로 인한 혼돈으로 인해 결국은 어린이 우울증이 높아질 우려도 매우 높다. 따라서 전통적 결혼정의의 재 정립한다는 것은 다음세대들의 건강한 가치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들로 이어질 수 있다.

동성결혼을 후원하는 기업들

ABT Associates Aetna, Inc. Akamai Technologies, Inc. Alere Inc. Bank of New York Mellon Corporation Bayer, Inc. Blue Cross Blue Shield of Mass., Inc. Boston Community Capital, Inc. Boston Medical Center Corp. Bright Horizons Children's Centers LLC Calvert Investments, Inc. CBIS Corporation The Chubb Corporation CompuSpace Corp. Constellation Energy Group, Inc. Dignity Health America, Inc. Eastern Bank Corp. Exelon Corp. FitCorp Healthcare Centers, Inc. Gammagarden, LLC Google Inc. Integrated Airflow Systems, Inc. Kington Hotel & Restaurant Group LLC Levi Strauss & Co. Loring, Wilcott & Co. LLC Massachusetts Mutual Life Insurance Co. Massachusetts Envelope Company, Inc. Massachusetts Financial Services Company Microsoft Corp. National Grid USA, Inc.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	"New Balance Athletic Shoe, Inc. New England Cynopsis Center, Inc. "NKE, Inc. The Ogilvy Group, Inc. Oryx Pharmaceuticals, Inc. Partners Healthcare System, Inc. Reproductive Science Center of New England Skyworks Solutions, Inc. "Starbuck's Corp.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 Storyfield Farm, Inc. Sun Life Financial (U.S.) Services Co., Inc. "Time Warner Cable, Inc. Trillium Asset Management Corp. WGS Development Associates LLC "Vance Corp. Zipcar, Inc. Law and professional firms: Burns & Leonard LLP Edwards Wildman Palmer LLP Foley Hoag LLP Goodwin Procter LLP Gouldin & Sons, P.C. McCarter & English LLP Nixon Peabody LLP Parthenon Group LLC Ropes & Gray LLP Salas & Gray LLP Seyfarth Shaw LLP
--	---

DOMA 법안이 제정된 배경

1993년 하와이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법안을 미국 최초로 제출하는 주(State)가 되면서, 그 당시 미국 정부와 대법원에 큰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 하와이의 동성결혼 지지 제출을 받은 미국 정부와 대법원은 결혼의 정의와 가정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헌법을 만드는 과정을 처음으로 거치게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DOMA(Defense of Marriage Act)라는 법안이었고 결혼에 대한 정의와 해택이 이런 배경으로 구성되게 됐다.

DOMA는 미국의 헌법으로 정식 제출되고, 특별히 DOMA 3조항에 의해 결혼의 정의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만을 인정하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법에 의해 결혼한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된다.

DOMA는 당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42 대 67의 투표와 85 대 14의 압도적인 표차로 의회와 대법

원에 의해 통과되고, 1996년 9월 21일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서명을 함으로서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결혼제도를 헌법으로 정의한 역사적 사건이 생겨난다.

DOMA가 최악의 위협에 처하다!

오바마가 2011년 2월 23일 법무장관인 에릭 홀더(Eric Holder)를 통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포용할 수 없는 DOMA 헌법 3항은 헌법으로서의 해당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오바마와 오바마 정부의 DOMA(전통결혼의 정의)를 폐지시키고자 하는 공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이 DOMA(전통결혼)의 대안으로 가지고 나온 것은 도덕적으로 더 큰 타락과 가치관의 혼돈이 예상되는

RFMA(두 사람은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라는 법안이다.

2011년 오바마의 발표에 대해 2월 24일 워싱턴신문에서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오바마)이 이미 헌법이 된 법안을 ‘위헌(unconstitutional)’이라고 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도했다.

오바마는 2011년과 2012년에 “LGBT PRIDE MONTH(동성애를 응원/지지하는 달)”을 백악관에서 가정으로 자신이 동성애자들의 지지자임을 확인시켜주고 결국 2012년 대통령 재선거 때 그들의 지지를 크게 받았다.

이처럼 전통결혼법안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공격이 계속 가해지면서 2013년 3월 27일 연방부 대법원에서 첫 번째 구두변론(oral argument)이 있었으며, 지난 5월 30일에 또 한번은 짧은 검토가 다시 있었다.

돌아오는 6월 말, 연방 대법원의 마지막 검토를 통해 DOMA와 캘리포니아의 PROP 8이 헌법 그리고 주정부 법안으로 계속 지켜질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갈리게 될

다. 지금부터 2주후에 내려질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결정이 될 것이다.

긴급히 해야 할 크리스천들의 의무: 기적을 위한 기도 금식 알리기!!(막9:29)

연방 대법원원이 법적 결정을 6월 말에 내려주지 않고 기각시킨다면 이 중요한 두 법안은 소법원에서 내린 “위헌”이라는 결과로 결정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지난 3월과 5월에 있었던 법정의 논의과정을 돌아볼 때, 대법원에서 DOMA와 PROP. 8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안전 자체를 기각시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만일 대법원에서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은 것처럼 이번엔 대법원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결혼에 대한 창조의 질서를 무시뜨리게 되는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1. 단순한 기도가 아닌 금식을 동행한 기도로 주님께 기적을 구해야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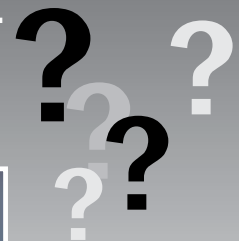
이번 주부터 6월 말까지 2주 동안 하루에 한끼씩 또는 할 수 있는 만큼 금식으로 기도하시되, 지금의 대법원에 있는 모든 판사들과 특별히 Anthony Kennedy, Elena Kagan 판사들의 마음이 기적적으로 이 두 법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2. 행복한 결혼, 진정한 결혼의 의미에 대해 널리 알리기.

결혼은 상대가 누구든지 사랑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결혼은 가정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이며, 사회적 국가적 역사적 책임을 동반한다. 결혼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 결혼을 통해 다음세대가 이어지고 인류의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결혼을 통해서만이 인류는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며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조사자료들이 또한 그 증거다. 건강한 결혼관을 통해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와 국가, 인류는 행복해진다. 더 자세한 것은 웹사이트(TVNEXT.ORG)를 참고하면 된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 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제 여동생이 오랜 기간 동안 불신 남편과의 문제로 인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한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파사디나에서 김 집사

A: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사회에서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인간이 임의로 이혼해왔고 이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이혼을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것으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혼을 악으로 여기면서 이혼에 대한 견해에 차이를 보여 왔습니다. 그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혼은 어떤 이유이든 무조건 안된다는 견해입니다. 로마카톨릭 교회가 이런 엄격한 견해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망이외에는 어떤 이유로든 결혼이 해체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둘째는 성경이 허용하는 이유에는 이혼이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물론 성경이 허용하는 사유를 간음만으로 제한하는 견해가 있고 때로는 만지 않는 배우자의 의도적인 유기의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셋째는 결혼의 이상을 성

음행, 불신배우자의 유기 때는 이혼 가능

취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혼관계가 왜곡되어있고 결혼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피치 못하게 이혼을 허락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성경의 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자의 음행(Adultery)입니다. 배우자가 음행한 경우에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과 19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를 가면 간음함”(마5:32, 19:9)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음행은 남편과 아내와의 배타적이고 항구적인 결합을 언약한 결혼의 언약과 의미를 정면으로 깨뜨리며 결혼을 파괴하는 행위가 됩니다. 바울도 ‘장가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을 알지 못하느냐?’(고전6:16)고 말함으로써 음행이 결혼언약의 동반자와의 한 몸 됨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음행은 부부됨을 분리시키는 행위가 될 만큼 중대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24장 5항은 남편이 다른 사람과 음행을 범했을 경우 이 남편은 아내에게 이미 죽은 사람과 같다고 말하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한몸됨을 분리하는 결혼관계의 해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음행을 했다고 무조건 이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죄를 범한 배우자라도 용서하고 받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배반하고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렘16:60).

둘째, 불신배우자의 유기입니다.(Reprobation). 당시 고린도교회는 부부가운데 한쪽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문제로 가정에 심각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때 개종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불신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통하여 거룩해지고 복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믿지 않는 배우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더 이상 믿는 배우자와 같이 살기를 거절하고 버리는 경우, 바울은 “갈리고자 하면 갈리게 하라”(고전7:15)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화평가운데 살게 하시기에 신앙문제로 결혼생활이 고통에 빠지게 된다면 이혼하고 화평가운데 살아가는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 살기를 거절하는 불신 배우자와 산다고 해도 그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고전7:16).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On Campus Courses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목회서신

빼앗아감과 하나님의 사랑



여승운 목사
(휴스턴 사랑의교회)

필자가 알고 지내는 어떤 분이 되
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네 살
짜리 아들에게 캔디를 몇 개씩 갖
다주었다. 아빠에게서 캔디를 받
는 기대 때문에 아들은 매일 자기
아빠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쯤에는
문 앞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의 이빨이 썩어들어가는 것
을 발견한 아빠는 더 이상 캔디를
아이에게 주지 않기로 하였다. 캔
디를 가져오지 않는 바로 그날 아
이는 반갑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다가 아빠의 손에 캔디가 없
는 것을 보고는 ‘아빠 미워’ 하면서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다고 한
다. 아이의 이빨을 보호하기 위하
서 캔디를 주지 않게 되었던 아이
를 향한 아빠의 배려와 사랑이 아
이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캔디
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미
운 아빠로 인식해버렸던 것이다. 지

금은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그때 이야기를 떠올리면 ‘아빠 고
마워요 사랑해요’라고 애교를 부린
다고 한다.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의아해 하
는 경우가 있다. 마치 아이에게 캔
디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것처
럼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끊어지게 하고 곤란하
게 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지금 당
신이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건강을 빼앗아가므로 어려움을 겪
고 있거나 가족 간의 어려움을 겪
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
게 인식하셨는가? 여호와 하
나님이 당신을 더 이상 돌보지 않
는다는 혹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
정짓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출
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몰도 없
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 길로 왜 인도
하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모세를 원망했다. 그들의 원망은 사
실은 모세를 지나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다. 정말 좋으신 하
나님이라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
면 어떻게 이런 열악한 곳으로 이
끌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결국 애
굽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
하게 되었던 것이다. 정말 물이 없
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는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
는가? 11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광
야 길을 40년을 걷게 했는데도 물
이 없어 죽지 않았고 먹을 것이 없
어서 죽는 일은 없었다. 그러면 여
호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길로 이끌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애굽의 이방신과
문화를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
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이스라
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아빠의 경우
자기 아이에게 캔디를 주다가 주지

않게 된 것은 아이를 향한 사랑 때
문이었다. 당신의 삶에 뭔가 공급이
줄어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잠으로 사랑하는 징표가 되
는 것이다.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앞에서 당신을 향한 여
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
지 말라. 성숙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헤
아려보면 달콤한 것을 줄때보다 더
욱 깊이 스며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아플 때 그
것은 당신을 정금같이 단련 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라. 어
렵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 닥쳐올 때 그것은 당
신을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하나님
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라. 가던 길
이 막히고 하던 일이 꼬일 때 그것
은 당신을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하
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라.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PCUSA, 동성애자안수 후 탈퇴교회 폭증

성경, 기독교 쇠락 노르웨이서 베스트셀러 1위

미국장로교(PCUSA)는 지난
해 교단을 탈퇴한 교회 수가 전
년 대비 5배 이상 늘었다고 5일
밝혔다.

PCUSA 총회본부가 공개한 통
계에 따르면 2011년 21곳이었던
이탈 교회 수는 지난해 110곳으로 급증했다. PCUSA
에서는 2011년 5월 전국 노회 과반의 찬성으로 동성
애자 목사 안수 허용안이 통과돼 그해 10월 첫 동성애
자 목회자가 배출되면서 소속 교회들의 이탈이 가속
화됐다. 상당수 목회자들이 “동성애자 안수 결정으로
PCUSA는 복음주의 실천에 관심이 없어졌다”며 교단
이전을 결심했다.

올해 초 교인 투표를 통해 PCUSA 탈퇴를 결정한 오
클라호마 주 퍼스트장로교회의 마틴 엘라스 담임목사
는 “PCUSA는 신학적 진보주의로 급격히 빠져들고 있
다”며 “교단 탈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투표
결과는 성도들을 이동시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입
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PCUSA 총회 간부인 에밀리 오덤 목사는 “미국의 주
류 개신교단 가운데 이처럼 극심한 이탈을 겪는 교단
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수적 신앙 기조를 지키기 위해 PCUSA를 떠난 교
회들은 신홍 복음주의 장로교단인 ECO(Evangelical
Covenant Order)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ECO는 현재 소속 교회가 28곳뿐이지만 48개 교회가
가입 절차를 밟고 있고 75개 이상의 교회가 ECO로의
이전을 타진하고 있다.

PCUSA의 총 회원수는 2011년 195만2000명에서 지
난해 184만명으로 11만2000명이나 감소했다. 이 같은
위기는 일차적으로 교단이 진보 색채를 강화한 데 원
인이 있지만, 미국 기독교계의 전반적 침체 분위기와
도 관련이 깊다. PCUSA에선 지난해 110개 교회가 탈
퇴한 것과 별도로 86개 교회가 교인 감소로 문을 닫았
다. 2011년 75건이던 교회 폐쇄 건수가 1년 새 11건
증가한 것이다.

PCUSA 총회본부의 그레디 파슨스 목사는 “이 같은
동계는 기독교 정체성을 잃어가는 미국의 분위기를 반
영한다”고 말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기독교
신앙이 쇠락하고 있는 노르웨이
에서 이례적으로 성경이 베스트
셀러 1위에 올랐다고 10일 AP통
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2011년 10월
출간된 노르웨이어 성경은 지난해 노르웨이에서 16만
부 가까이 팔려 최고 베스트셀러가 됐다. 성경은 서구
출판계를 강타한 에로틱 소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
자’도 제쳤다. 성경책뿐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현대적
으로 각색한 6시간짜리 연극 ‘성경(Bibelen)’이 최근 3
개월 동안 수도 오슬로에서 상연되면서 1만6000여명
의 관객을 끌어 모으는 성공을 거뒀다. 전체 인구 500
만명 중 교회 출석 인구가 1%에 불과한 나라에서 이
례적인 현상이다.

노르웨이성서공회는 1978년판 성경을 대체하는 개
정판을 내놓으면서 마리아를 가리키는 ‘동정녀(vir
gin)’란 표현을 ‘젊은 여인(young woman)’으로 바꾸
는 등 번역에서 변화를 꾀했다. 또 타깃 연령층에 따라
책의 장정(裝幀)을 달리 하고 대중소설처럼 광고 프로
모션을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성서공회는 가독성을 높은 번역과 적극적인 마케팅
외에 이민자 증가 현상도 성경의 인기에 작용한 것으
로 분석했다. 노르웨이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지
난 6년간 25만8000여명의 이민자가 유입됐는데, 이
중 60%가 크리스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서공회 관
계자는 “나머지 40%는 무슬림과 힌두교, 불교도인데
노르웨이 국민들이 외부 종교에 노출되면서 토착 기
독교 신앙(루터교)에 더 관심을 갖게 된 측면도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바나그룹은 미국 성인 1075명
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 교
회 출석자의 61%, 기독교가 아닌 종교를 가진 사람의
18%, 종교가 없는 사람의 9%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
까지 읽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바나그룹 대표 데이
비드 키너만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
중 상당수가 성경을 통독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라고 말했다.



러시아의회 동성애금지법안 통과

러시아 의회가 11일 동성애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
켰다. 러시아 하원은 이날 재적
찬성 436명, 반대 0명, 기권 1명
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
은 ‘비전통적인 성적 관계를 미
성년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
용을 담았다.

특히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언론단체 모두
에 적용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
이 최근 러시아에서 늘어나고 있는 동성애 혐오 범죄
를 조장할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롬니 효과?’…물론교, 공격적 해외선교 선포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계
기로 이미지 쇄신을 이룬 물론교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가
그 여세를 몰아 교세 확장에 박
차를 가하고 나섰다.



물론교는 최근 교단 총회에서
해외 파송하는 선교사의 하한연령을 남자는 19세에서
18세로, 여자는 21세에서 19세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고 10일 일간 USA투데이 등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이
에 따라 물론교의 해외 선교사 수는 올가을 8만5천명
으로 38% 급증하고 내년에는 2000년대 평균의 2배 수
준인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물론교로의 개종자 등 새 신자 수를 늘
리고 기존 신자들의 교회 참여도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도 받고 있다. AP통신은 물론교가
젊은 남녀 선교사들로 지구촌을 뒀을 채비를 하고 있
다고 전했다.

물론교에서 젊은이의 해외 선교는 진정한 신자로 거
듭나기 위한 통과의례로 여겨지는 활동이다. 해외에
나가면 남자는 2년, 여자는 1년6개월 동안 선교 활동
을 한다. 물론교 선교사들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각
지에서 흰 셔츠의 단정한 차림을 하고 행인에게 다가
가 신앙을 알리고 영어교육 등 각종 지역봉사 활동도
한다.

물론교는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만 삼위일체
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구원받을 사람은 미리 정
해져 있다는 개신교의 예정설도 거부하고 천국과 지옥
행 여부는 지상에서 도덕적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결

정된다는 행위론을 강조한다. 이런 교리를 이유로 ‘정
통’ 기독교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아왔으나 물론교 신
자인 미트 롬니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도덕과 금욕에 기반한 신앙생활이 널리 알려지던
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됐다.

가장 평화로운 나라는 아이슬란드…한국은 47위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
로운 나라는 아이슬란
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로운 나라 순위에
서 남한은 47위, 북한은
154위를 기록했다. 해마
다 세계평화지수(GPI)
를 발표하는 호주 시드
니 소재 경제·평화 연구
소(IEP)가 11일 내놓은
‘GPI 2013’ 보고서에 따
르면 조사 대상 162개국
중 아이슬란드가 1.162
점으로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꼽혔다.

아이슬란드는 지난해
에도 가장 평화로운 나
라로 선정된 바 있다.
다음은 덴마크(1.207
점), 뉴질랜드(1.237점), 오스트리아(1.250점), 스위
스(1.272점), 일본(1.293점), 핀란드(1.297점), 캐나다
(1.306점), 스웨덴(1.319점), 벨기에(1.339점) 순으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평화지수는 국내 및 국제분쟁, 사회 안전, 치안, 군비
확장, 폭력범죄의 정도, 전쟁 사상자, 잠재적인 테러 공
격 위험 23개 지표에 대해 1~5점을 매겨 산출한다. 1에
가까울수록 ‘평화로운 상태’를 뜻한다.

162개국 가운데 최하위는 아프가니스탄(3.440점)
이었고 소말리아(3.394)가 161위, 시리아(3.193점)가
160위, 이라크(3.192점)가 159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1.822점으로 지난해 42위에서 47위로 순위가 떨어졌
고 북한은 3.044점으로 지난해 152위에서 2계단 하락
했다.

보고서는 “상위 10위권에 7개국이나 이름을 올린 유
럽이 가장 평화로운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
의 경우 북한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긴장관계가 낮은
순위의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담임 목사 청빙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에덴장로교회 (PCUSA)는 36년의 역사와 자체성전을
소유한 준비된 교회로써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

1. PCUSA 교단소속 또는 본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분
2. 본교단이 인정하는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하신분
3.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서 2중언어(한/영) 능통하신분
4. 목회경력 10년이상 이신분
5. 담임목사 5년 임기제(공동의회 과반수찬성으로 연임가능)

■ 제출서류

1. 이력서(한/영 각1부) 및 가족사진
2. 목회 소견서
3. 본인, 사모, 가족소개서
4. 최근 6개월내 설교 동영상(CD or DVD)
5. 대학 및 신학대학 졸업 증명서
6. 목사 안수 증명서

마감 : 2013년 6월 15일 (이메일이 아닌 우편으로만 제출받습니다.)

우편 제출처 : Eden Presbyterian Church / 1053 6th Ave. Honolulu, HI 96816

문의 : 청빙 위원장 이영배 장로 (daniellee1028@gmail.com)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익안

주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김 만 형 목사

(친구들교회)

세계 한인교회를 위한 교회교육 제안 (2)

2. 담임목회자가 교육철학을 분명히 하라

교회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담임목사의 몫입니다. 목회자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교육에 관한 입장을 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교육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교육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교육 활동을 디자인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많은 기독교 교육자는 스스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나 미션스쿨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자신은 바른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이지 못합니다. 즉 다른 일반 교육자들과 그 생각이나 태도에서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독교 교육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론 보다 앞섭니다.

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되신 자신을 보여 주기 위해 계시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라고

먼저 교회 교육자는 기독교 인식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프랭크 게버라인(Frank Gabelein)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곧 이 땅에서 발견되는 어떤 진리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거스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급된 말인데 기독교 인식론의 기초

합니다. 일반계시는 자연을 말하고 특별계시는 곧 성경을 가리킵니다. 일반 학문이나 일반 사회교육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계시와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발견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일반계시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성경인데, 왜 하나님

특별계시를 주시게 되었는가? 그것은 일반계시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특별계시에 기초한 교육활동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 특별계시만을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일반 계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범주 속에 들어선 것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것을 연구하고 탐구해서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 교육을 다룰 때 이 모든 진리의 영역들을 전부 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성경과 더불어 일반 학문의 모든 영역도 연구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일반 학문, 또한 삶의 경험 모두를 기독교 교육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일반계시에서 발견된 진리를 다시 성경의 조명

에 기초한 관점(Perspective)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내용을 가르칠 때 이 '관'이 없이 가르친다면 그것은 비기독교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를 볼 때도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는 '모든 학습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한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학습자는 타락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배우는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

넘겨버리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그들의 영적 구원만 돕는데 관심을 두어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교육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인데 곧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보고 그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독교 교육자, 교사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배우는 자로 인격적인 온전함뿐만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일까지 온전토록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곧 교사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로서의 정체성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르치는 일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이후 좀더 성숙해서 좀 덜 성숙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는 가르치는 일이 영적 성숙의 개념에서 상호 돕는 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정보를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로서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곧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이만큼 성숙한 자로서 이보다 덜 성숙한 사람을 도와서 내 수준으로까지 끌어 올릴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져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메일: kimanhy@hanmail.net
(다음호에 계속)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은사를 개발함으로 온전한 자로 교육 머리로만 알지 않고 이웃 부요하게 하는 행위로 연결되도록

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교육의 내용으로 성경을 다루느냐 아니면 일반 계시에 기초한 여러 학문을 다루느냐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물을 보면서 또한 모든 진리를 이해하면서 그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교육하는 자가 성경

에 그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갖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학습자를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를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을 단순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자로만 보아

가정사역 칼럼

자녀의 성적 정체성의 중요성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일찌기 프로이드는 인간심리의 이해는 성적 관심이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주장하여 세간에 충격과 술한 파장을 일으켰고 그러한 반향은 지금까지도 심리학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오고 있다고 본다. 오늘날까지 이뤄진 연구들과 주장들을 종합해보고 특히 성경적인 입장에서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적 정체성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

어린 자녀들은 보통 3-4세 정도 이면(물론 아이마다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자신이 남자 혹은 여자라는 성적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특히 엄마나 아빠를 기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배워가기 시작한다. 많은 경우 남자아이들은 엄마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엄마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은 엄마와 성적으로 다른 입장인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은근

히 아빠와는 경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한다. 이 때 남자아이들은 프로이드에 의하면 소위 "오디푸스 콤플렉스"- 혹은 아빠가 자기를 미워하여 자신의 성기를 거세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여자아이들은 반대로 은근히 아빠를 더욱 친근히 따르면서 엄마와 대립된 입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자녀들은

이런 시기를 흥여 앓듯 한두 번의 갈등구조를 경험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보통이고 그런 경험 후에는 자연스레 엄마아빠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키워가는 것이 정상적인 발달과정이다. 하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엄마아빠의 관계가 힘든 가운데 불균형적으로 치우쳐 있을 때, 아이들은 상당한 혼란과 성장 발달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먼저 아빠가 부재하거나 존재하지만 거의 자녀에게 무관심한 경우, 아이들은 엄마와 절대적인 시간을 보내며 엄마의 입장에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키워나가게 될 것이다. 특히 아빠로부터 학대가 있게 되는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남자아이는 엄마 편에서 아빠를 적대시하거나 아빠를 미워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남성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 것이다. 반대로 여자아이는 엄마아빠가 갈등하는 구조 속에서, 은근히 엄마를 견제하며 아빠 편을 들고 싶어한다. 많은 경우 여자아이들을 엄마가 야단치고 아빠는 다독이거나 과잉보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욱 그런 현상을 부채질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훗날에는 역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혼란스럽게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 반대현상도 있을 수 있다. 매를 맞거나 학대 받은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란 딸들은 언젠가 자신이 힘이 생기면 아빠에게 대들어서 복수를 하리하고 마음속으로 칼을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성에

대해 비정상적인 자화상을 가지기 쉬운 것이다. 자신이 분명 남자인데서도, 학대받았던 엄마나 누나를 대신하여 자신 안에 남성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오히려 여성적인 입장을 동성함으로써 남자친구들로부터는 이상한 듯 외면당하기가 쉽게 된다. 반대로 자신은 여성이면서도, 학대했던 아버지를 미워하여 아버지와 비슷한 남성을 만나면 공격적이 되어 도무지 이성으로 가까워지지 않고 오히려 경쟁적, 혹은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처방이 있다면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나 어머니를 용서함으로써 부모와 잘못 연결된 정신적인 끈을 잘라내는 것이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창2:24).

▲이메일: familykum@gmail.com



조용기 목사



베데스다 대학교

BETHESDA UNIVERSITY OF CALIFORNIA



1. 4차원 영성 최고 지도자 과정(미국 1기, 한국 12기)

4D: Fourth Dimensional Adhance Leader Training은 기독교 리더들이 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산업계 및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최고 교회 지도자 리더들이 되도록 조용기 목사가 4차원 영성을 교육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정개요

- 교육대상** *기업체회장, 사장, 임원급 이상
*국회의원 및 정부 각 기관 고위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기독교관련 종교 및 선교단체 임원급 이상
*교파를 초월한 담임목사, 목회자
*교회 직분자(장로, 권사 외)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자
- 교육기간** *2013년 6월18일(화)~20일(목)
*7월~8월(2개월 온라인 강의/주 1회씩 6회)
- 과정운영**
4차원영성 이론강의: 4차원 영성 기원 및 영적인 원리(생각, 믿음, 꿈, 말)에 관하여
4차원영성 실천강의: 기독교 인생관 및 리더십 분야
- 교육장소** *하워드존슨 호텔 (플러튼) 1층 세미나실
- 지원서** *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 전형방법** *서류전형
- 4차원영성최고 지도자과정 11기까지 442명 졸업**
주대준(KAIST 부총장), 성시영(KBS 아나운서), 김성동(전국회의원), 조대숙(변호사, 전 국회의원), 조성민(한양대교수), 김중환(국회의원), 김정택(SBS예술단장), 이현재(국회의원), 손인준(국회의원), 고승덕(현변호사,전국회의원), 이양호(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동환목사(베데스다대학부총장), 이태근 목사(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최영준목사(순복음강남교회당회장), 전호준목사(여의도순복음상복교회), 송영준목사(성산순복음교회당회장) 등
- 기대효과**
* 베데스다총동문회 회원
* 4차원영성글로벌포럼 미주본부 정회원가입(총재 조용기목사)
* 봉사 및 사회참여(영산조용기자선재단과 연계한 사회 구제활동)
* 교제와 교류(정기모임 및 Net-Work 형성)한국-미국

2. 여름학기 목회학 박사(D.Min)집중과정

베데스다 대학교는 1976년 조용기 원로목사님께서 세계를 주도할 기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꿈을 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대학교입니다. 본 대학은 발전을 거듭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판하의 BPPPE의 인가는 물론 미연방 정부 교육부 USDE 및 고등교육인가 기관인 CHEA판하의 ABHE 및 TRACS의 인가를 받아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정규대학교입니다.

과정개요

- 목회학박사 입학 절차요건**
* 인가된 대학원의 목회학 석사학위(M.Div)소유자로서 3년이상 목회를 하신 목회자들의 연장 교육을 위한 목회학 박사과정
- 교육기간**
* 오순절 영성의 토대와 성장: 7월22일(월)~26일(금) 담당교수 Dr. Ken Walters
* 선교사역과 문화적 참여: 7월29일(월)~8월2일(금) 담당교수 Dr. Alan Mc Mahan (목회학 박사 과정은 집중과정으로 진행되며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 입학지원비(\$35 국내지원자 \$280 해외지원자(I-20 발급비포함))**

원서교육 및 접수

- 4차원영성최고지도자 과정 및 여름학기 목회학박사 집중과정
- * 베데스다대학교 교무처(730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 * 지원서 마감: 4차원영성최고지도자 과정 6월10일까지, 목회학박사과정 7월5일까지
- * 홈페이지: www.buc.edu
- * 문의: 4차원영성 최고지도자 과정(714)318-9528 목회학박사과정 (714)517-1945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40. 젊은 지구에 대한 10가지 과학적 증거 (5)해저 침전물

성경은 지구의 역사가 불과 수 천 년 뿐임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 성경 속에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수십억 년의 긴 기간이 없다. 지난 칼럼들을 통해 지구의 나이가 불과 수천 년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들로 석탄이나 다이아몬드에 들어있는 방사성 탄소의 양, 화강암 속에 들어있는 헬륨과 공기 중의 헬륨, 그리고 감소하고 있는 지구 자기장을 예를 들어 소개하였다.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은 사용하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와 결과들도 보여주었다.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 아니라는 증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저 침전물”을 통해 수천 년의 성경역사가 사실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바다의 기원

진화론자들은 바다가 30억년 전 쯤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믿는다.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진화론자들은 맨 처음에는 뜨거운 육지만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엄청난 긴 기간을 통하여 지금과 같은 양과 빈도로 비가 내리고 그 물이 흘러 한 곳에 모여 지금의 바다가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다. 한 때는 그 비가 혜성에서 온 물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으나 1999년에 Caltech의 과학자들이 그 설명에 찬물을 끼얹었다. 혜성의 물에는 원자량이 일반 수소의 2배인 중수소(deuterium)가 상당량 들어있으나 바닷물에는 중수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진화론자들에게 바다의 기원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창조론자들에게 바다의 기원은 확실하고 증거까지 들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창조 2일째까지 물에 싸여 있던 지구에 물이 드러나면서 물이 낮은 곳으로 모여 바다들(seas)이 형성되었다. 이때 물이 움직이면서 만든 지층에는 화석이

없고 지층만 보여준다. 이 창조 3일째의 지층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랜드캐니언에서 창조 1일째의 지층과 더불어 볼 수 있다.

2. 예상보다 훨씬 적은 해저 침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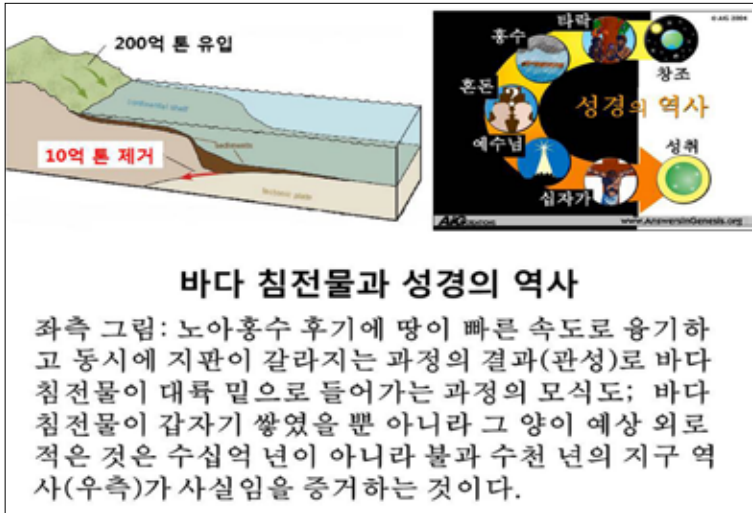
현재 매년 약 200억톤 정도의

니없이 오랜 기간이다. 만약 진화론적인 나이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250 배나 더 많은 해저 퇴적물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진화론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는 침전물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속도로 30억 년 동안 아주 천천히 쌓였을 것이라고 둘러대기도 한다. 그러나 바다 침전물의 양상을 보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쌓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모든 과학자들은 지층이 격변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바다 밑의 지층들도 역시 육지와 똑같은 양상으로 갑자기 쌓였음을 보여준다. 바다에서 산사태가 날 경우 흙탕물(turbidity current)이 아주 빠른 속도로 넓은 지역을 덮게 되는데 현재 바다 밑 지층들은 이렇게 형성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3.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본 해저 침전물

성경역사를 통해 보면 현재의 바다는 약 4350여 년 전 노아홍수 후기에 형성되었다. 지금 지구를 평평하게 고른다면 바닷물이 지구를 평균 약 2600m 깊이로 덮게 된

노아홍수후기 지판, 빠른 속도로 움직임 보여주는 증거 많아 속도 빠르고 양도 적게 쌓인 해저침전물은 젊은 지구 증거



침전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쌓이고 있다. 대부분은 대륙 가까운 바다 밑바닥에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느슨한 형태로 쌓여있는데 평균 400m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쌓인 침전물들 중 일부는 바다 지판(plate)이 대륙지판과 부딪히는 곳에서 대륙지각 밑으로 매년 약 2-6cm씩 들어가는 과정에 함께 대륙지각 밑으로 휩쓸려 들어간다. 이 양이 약 10억톤 정도다. 그러므로 순 퇴적량은 매년 약 190 억톤이 된다. 이런 속도로 퇴적이 된다면 400m 정도의 퇴적물은 1200만년이면 충분하다. 바다의 나이가 30억 년이란 주장은 터무

나. 물질보존의 원리를 적용하면 노아홍수 때 전 지구가 이런 물에 잠겨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물은 노아홍수 후기에 바다로 물러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대륙의 융기와 동시에 대륙이 갈라지면서 이루어진 현상으로 보인다. 노아홍수 후기에 대륙은 아주 빠른 속도로 갈라져 나갔다. 노아홍수 중기가 되었을 때 부서진 땅들은 물속에서 초 대륙이 되어 한 덩어리로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대륙들이 예전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대륙 간에 모양이 맞추어지고, 지층 순서가 갈

고, 그 속에 들어있는 화석들도 같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설명은 진화론자나 창조론자 모두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대륙(지판)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떨어져 움직였는가 하는 것이다. 창조론자들은 노아홍수 후기에 지판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고 믿는다. 그 증거들로는 대륙붕이 끝나는 곳에서 갑자기 바다가 깊어지는 점, 대륙판과 바닷판이 부딪힐 때 대륙 지각 밑으로 들어간 커다란 바다 판이 아직도 낮은 온도를 보여주는 점,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곳에서 지층이 휘어 있는 습곡(folding)을 보여주는 점 등이다. 지층이 휘어있는 습곡은 지층이 아직 굳지 않고 젖어있을 때만 형성가능하다. 오랜 시간이 지나 지층이 굳은 다음에는 훨씬 압력을 받으면 부서지지만 휘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습곡은 노아홍수 후기에, 여러 겹의 지층이 아직 굳지 않은 상태에서 지판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 충돌했을 때 형성될 수밖에 없다. 한 유명한 과학지에는 창조론자의 주장을 시인하고 있는 진화론자의 고백이 있다. “다양한 연구에 의해서 지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판(plate)들이 과거에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증거 때문이 아니라 동일과정설적(uniformitarianism) 신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지판이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지질과정이 과거에도 오늘날과 같은 정도여야 한다는 동일과정의 원리에 지배되어있기 때문이다”(Gordon, R. G., 1991, Plate tectonic speed limits: Nature, v. 349, pp. 16-17). 진화론자들의 설명과 달리, 해저 침전물은 아주 빠른 속도로 쌓였으며 그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 침전물의 거의 대부분은 노아홍수 후기에 깊음의 샘들이 닫히고 지구를 덮고 있던 물들이 현재의 바다로 흘러들어가며 쓸려다 놓은 것이다. 예상 외로 적은 바다 침전물은 젊은 지구와 성경의 역사가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욥38:8). 하나님께서 음에게 던졌던 이 질문을 통해 노아홍수 뿐 아니라 불과 6000여 년 전의 창조사건까지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배려의 성품으로 세상품고살기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바로 ‘배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도 ‘배려’이지요. 배려 받고 배려하며 살고 싶지만 우리 안에 좋은 배려의 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배려를 실천해야 할지 모르는 것도 과연은 아닙니다.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피 주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배려는 나를 잘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9)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배려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복의 근원이 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한 사람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 복을 흘려 보내는 통로가 바로 배려의 성품인 것입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세계 곳곳에 때 아닌 눈과 비가 내려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도시가 붕괴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배려하지 않은 결과들이 고스란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주께 죄송한 마음과 동시에 다음세대의 주인공들에게도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 더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기 전에 배려의 성품으로 세상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다음세대에도 가르쳐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좋은나무성품학교에서 배려를 배운 5살 아이가 동네를 다니면서 자꾸 더러운 캔을 줍는 것을 보고 엄마가 아이에게 캔을 줍는다면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엄마, 저는 지금 환경을 배려하는 중이에요”라고 대답했지요. 엄마는 “아, 우리 아이는 이렇게 환경을 배려하는데 나는 나 자신과 아이도 배려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내 생각대로가 아닌 상대방의 욕구를 관찰하며 보살피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공감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공감인지능력에서 비롯된 성품이지요. 공감인지능력(Empathy)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도덕적 정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상처입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옳은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과 환경에 대해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다음과 같이 공감인지능력을 연습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안쓰럽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으면 다가가 위로해 줍니다. △다른 사람이 우는 것을 보면 함께 슬퍼합니다.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냥하게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이기면 함께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지저분한 환경을 치워줍니다. 이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봅시다. 우리의 공감이 필요한 상황에 주저하지 말고 배려하는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 대처해 봅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라”(요3:16)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속의 사건은 연약함을 공감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배려’의 성품을 지으신 창조주임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지요.

JoyLA.com

추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세일가격 \$150.00+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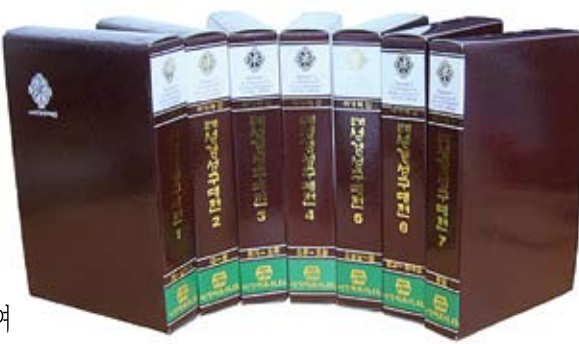


32 Set 한정특가판매(1set 12권)

이제 완벽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 1권:가~납하스
 - 2권:다~못
 - 3권:못가~소위
 - 4권:소위~오늘
 - 5권:오늘날~종
 - 6권:종교~히대결
 - 7권:판람
-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 3. 한글성경 성구를 이에 해당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기념타올 판촉물 신선허

자수인쇄 BATH 타올
잉크프린팅 BATH 타올



JoyLA가
확!
달라졌습니다



크로스웨이성경연구교제

- 크로스웨이 1권~5권
- 크로스웨이 사례집
- 크로스웨이 오디오CD
- 크로스웨이 수료증
- 크로스웨이 PPT 슬라이드

미주독점판매



조이기독백화점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The Life” 2013 하이어콜링 컨퍼런스 GKYM 이름 바꿔 12월 26-29일 샌디에고에서

지난 3년간 미주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 한국대학생교회(KCCC, 미주대표 김동환 목사)와 북미주교계가 연합해 주최했던 GKYM 컨퍼런스가 하이어콜링 컨퍼런스(Higher Calling Conference)로 열리게 된다.

2013 하이어콜링 준비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 11시 KCC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월 26일(목)부터 29일(주)까지 샌디에고에 위치한 Town and Country Resort & Convention Center에서 “The Life”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강사는 “Craze Love”의 저자인 프렌시스 쉐(Cornerstone Church Founder), 데이브 기븐스(뉴송처치), 로저 히슬러(“The Finisher” 저자), 박형은 목사(동양선교회), 김동환 목사(미주CCC대표) 등이며 전문분야별로 50여명의 강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하이어콜링은 △1.5세와 2세가 주도하고 1세 리더들이 지도와 후원으로 만들어가는 집회 △북미주



하이어콜링 컨퍼런스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지역의 영적부흥을 일으킬 차세대 리더를 키워가는 집회 △세계선교를 감당할 선교의 주역들을 세우는 집회 △북미주 5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학생 중심의 청년부흥운동 △중소형 교회의 청년대학생들이 함께 모이는 강소교회(강하고 작은 교회)연합운동 등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집회의 특성은 △갈 훈련된 소그룹 리더들이 전체 집회기간에 기상부터 취침을 함께 하며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훈련이 가능하며 △소그룹 리더들을 통해 참여자들의 아주 개인적인 영역들까지 상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외되는 참가자들이 없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전체 집회 외에도 50여명의 전문분야별 강사들로 진행되는 선택강좌를 통해 각자의 필요에 맞는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전체 집회는 영어로 진행되지만 한국어권을 위한 프로그램도 오전에 진행되며 전체 집회는 통역이 제공되기에 한국어권과 영어권이 연합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진행과 조직은 △현장집회의 2세 사역자들이 중심이 된 NexGen Pastors Fellowship이 중심이 돼 진행하기에 각 교회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며 △영어권과 한국어권이 모두 참여하고 소수일지라도 타민족들도 참여해 선교적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고등학생 그룹들이 참여해 예수님을 만나 일직 미래를 향한 꿈을 발견하도록 믿음을 가진 선배들이 도전한다. 또한 대회기간 중에 선교단체 및 비즈니스 기관들의 부스를 설치해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게 하고 심대와 청년대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실제적인 정보들을 발견하고 찾아가도록 도움을 주며 △선교에 헌신하게 함으로 대회 이후 KCCC 뿐만 아니라 각 교회와 단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장단기 선교 사역에 헌신하게 한다.

김동환 목사는 “지난해의 경우 영어권이 2200명 한국어권 600명이 참여했다. 올해역시 작년과 비슷한 비율로 청년들의 참가가 예상된다”며 영어권이 활성화 된 반면 한국어권의 참여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영어권청년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태어나거나 영어가기 때 이민은 자들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수련회 등에 참가하는데 자유로운 반면, 한국어권 청년들과 학생들은 대부분 유학생이거나 말단직원으로 자유롭게 휴가를 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어서 대회참가가 어려운 실정”이라 밝혔다. 김 목사는 “한어권청년들을 위해 앞으로 LA에서 하이어콜링 집회를 마련할 계획”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ECA 목사안수식...고재석 전도사 등 20명



ECA안수식에서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ECA인터내셔널(Evangelical Church Alliance International 총회장 로버트 트릴 목사)이 5일 저녁 6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목사안수식을 열고 고재석 전도사(인랜드 교회) 등 20명에게 목사안수를 했다.

다니엘 뉴던 목사(예보교회/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목회학박사 과정 디렉터)의 사회로 시작된 안

수식은 윤덕근 목사(얼바인브릿지교회 담임)가 기도, Rob Schenck 목사가 요한복음 20장 19-23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이어 로버트 트릴 총회장이 안수식을 집례해 20명이 안수 받았다. 이

날 안수식은 ECA인터내셔널한인협의회(ECA Korean Council)에서 마련됐다. 다음은 안수 받은 목사 명단이다.

고재석, 이영수, 이진수, 안문재, 라몬 보닐라, 조랜드, 은희권, 김 데이빗, 김효근, 김혁동, 김 풀, 김 피터, 김광호, 김선화, 김성영, 이민규, 테보라 마운드, 백광혁, 석희정, 유효정.

(박준호 기자)



김미선 강도사의 목사임직예배가 마친후 순서말은이들과 하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보수개혁총회중앙노회 김미선 목사임직

김미선 강도사의 목사임직 예배가 8일 오후3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열렸다. 중앙보수개혁총회 중앙노회(노회장 이종렬 목사) 주최로 열린 이날 목사임직예배는 송택규 목사의 사회로 시작, 여금식 목사가 기도, 함광훈 목사가 성경봉독, 그리고 이종렬 목사가 “가라침의 축복”(마 28:19-2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엄기환 목사(예장대한총회장)가 권면, 그리고 정영희 목사가 축사했으며 총신대학음악대학 동문중앙팀이 축하를 불렀다.

김미선 목사는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기위해 기다리신다는 감동을 주셔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세상을 향해 남발을 내딛고 살던 모습을 끊고 남은 생애 예수님이 가진 길 따라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도와 격려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선 교수는 미주총신대, 미주감신대, 국제개혁대학교 등에서 교회음악과 교수로, 그리고 월서연합감리교회 전도사로 수년간 사역했으며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박준호 기자)



풀러신학교 한인총동문회 주최 목회자세미나에서 강사로 초청된 전주안디옥교회 박진구 담임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하나님을 웃게 하는 갱통교회...”

2013풀러 목회자세미나, 강사 박진구 목사

풀러한인총동문회가 주최한 2013 풀러 목회자 세미나가 “하나님을 웃게 하는 갱통교회: 어제, 오늘 & 내일”이라는 주제로 10일 오전 11시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박진구 목사(전주안디옥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강

의를 인도했다. 전주안디옥교회는 이동휘 목사가 개척했으며 풀러신학교에서 Ph.D.학위를 취득한 박진구 목사가 필리핀에 있는 바울선교훈련원에 원장으로 사역하다 2005년부터 이동휘 목사의 뒤를 이어 2대 담임목

사로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박 목사는 “전주안디옥교회에 담임으로 청빙돼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나 교인들의 이탈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본궤도로 돌아오게 됐으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주안디옥교회는 재정의 60%를 선교에 사용하고 있다. 기본적인 운영비 외에는 모두 자비량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회내 각 기관의 운영비는 모두 회비를 걷어 운영한다. 이러한 자비량 실천은 이동휘 목사 때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성도들은 불편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열심히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한국의 교회는 리더십이 바뀔 때 진통을 겪기도 한다. 심지어 세습이 이루어진 후임목사조차 교인들이 만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후임목회자는 전임자의 사역패턴을 그대로 이어가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할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고 변화와 개혁을 시기적절하게 시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전임 목회자와 후임 목회자의 융화를 강조했다.

이날 박진구 목사는 갱통교회라는 낙네임이 붙은 전주안디옥교회의 탄생과 성장과정에 대해 열띤 강의를 인도했으며 참석 목회자들은 강의를 경청하며 자신의 목회사역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세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8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침례: 오후 9:00 세벽기도회: 오전 11:00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해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세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저녁예배: 오후 9:00 금요예배: 오후 9:00 세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세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세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5 www.nyantioch.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벽기도: 오전 5:45(월-토) Website: nyibc.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 오후 9:00 세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수, 3부) Tel. (201)342-3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8:10 창립년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예배: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 전 영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9:45 수요영양예배: 오후 8:30 주일학교: 오후 9:00 세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 (516)333-1757, 팩스인,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저녁예배: 오후 9:00 세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세벽예배: 오전 6:00 Tel. (732)310-0022(교회),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절단예배: 오전 1:30 NCF 영양: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날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 11:00 Tel. (704)-841-0821, Fax. (704)841-1625 목사관: (704)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WM예배: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세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영 양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W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세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중등청년부: 오전 10A (한): 오전 11시 유아, 청년부: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Tel. (410)337-9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세벽기도: 새벽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98(팩스겸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세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시팩,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as.org	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얼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교회 (915)755-1490, 타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날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EW)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8:00 세벽기도: 오전 6:00(토) www.jkc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c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제복(기독교, 주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벽예배: 새벽 5:30(화-금) 세벽예배: 오후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영/한)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영양예배: 오전 9:30 주일날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세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피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영어) 세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tkcpcz.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cupc.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벽기도회(한-영)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세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오늘돌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e St, Honolulu, HI 96822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소속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가 2013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학교는 △대학부: 신학과, 선교학과 △대학원: 목회학, 기독교교육, 선교학 △여교역학과이며 입학원서, 당회장/목사 추천서,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신앙고백서, 사진2장과 입학전형료 30달러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마감은 9월 6일(금) 오후 6시이며 입학시험은 7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1시에 있게 된다.

▲문의: (646)717-2733, (718)463-7163

담임목사 청빙

1972년에 설립된 아르헨티나중앙교회(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소속)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담임 혹은 부목사로 5년 이상사무 만 40~50세로 이력서, 신앙고백서, 개인/가족소개서, 목회계획서, 목사안수증명서, 설교 2편(동영상 1편), 현재사역교회 주소 및 홈페이지, 현재사무 목사추천서 등이 필요하다. 마감은 7월 31일. 이메일: chungang.ar@gmail.com

▲문의: 0054-11-4921-9395, 0509, 8860

NJUCA중고등학교 학생모집

기독교 교육 이념에 기초한 사립중고등학교 뉴저지크리스천아카데미(NJUCA, 이사장 신정하 장로)가 2013~2014년 신입, 편입생을 모집한다. 6~12학년 각 학년 별 약간 명, 서류 및 인터뷰가 있다. 개강은 9월 5일이며 유학생들에게 I-20를 발급한다. 웹사이트 www.njuca.org

▲문의: (609)954-2900

미주지역 3차, 4차 복음화전략세미나

미주지역 3차, 4차 복음화전략세미나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열린다. △뉴욕은 6월 24일(월)과 25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뉴욕즐거움교회(담임 김정숙 목사)에서 △뉴저지는 26일(수), 27일(목) 같은 시간에 뉴저지벨렐교회(담임 정성만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 송기배 목사는 가정사역을 통한 관계전도 전략인 '파워관계전도세미나'를 미주지역에서도 펼치고 있다.

▲문의: (917)669-0461

아이티 구호팀 모집

헬핑핸드 미션네트워크(대표 조항석 목사)가 올 8월 17일(토)부터 22일(목)까지 아이티 고아원 및 포토 프린스(수도) 인근 사역지에 참가할 구호팀을 모집한다. 대상은 10~12학년 재학생(해외여행이 가능한 학생)과 성인 참가자이며 참가비는 일인당 항공료+450달러, 접수(예비모임)는 6월 22일(토) 오후 3시(장소추후공지)에 있게 된다. 이메일로 참가신청서 작성 후 면접이 있으며 학생참가자는 추천서 및 에세이,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7월 7일 및 8월 중에 있는 6회의 훈련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예상인원은 15명.

▲문의: chohenry01@gmail.com



퀸즈성인대학 종강예배 드리고 방학에....

퀸즈성인대학이 지난 11일 종강예배를 드리고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종강예배는 이윤석 목사 사회로 허경화 장로 기도 후 이윤석 목사가 “엘가나의 믿음”(삼상1:2-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믿음에 대해 설명하며 참석

학생들에게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 노릇을 잘함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어른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퀸즈성인대학은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을학기 개강은 9월 3일.

“믿음”으로 할렐루야대회 준비

뉴욕교협 임신행위원회 및 할렐루야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이 제 3차 임신행위원회와 제 4차 할렐루야 준비기도회를 갖고 그간의 회무보고와 함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0일 뉴욕은혜교회(담임 이승재 목사)에서 열린 제 1부 예배는 이희선 목사의 인도로 기도 이대연 장로, 말씀 양승호 목사, 특별통성기도, 광고 장경혜 목사, 축도 안창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승호 목사(직전회장)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본문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만큼 귀하고 중요한 건 없다”며, “믿음에는 지식과 학문, 경험을 중시하는 이성적 믿음과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적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믿음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려면 첫째, 살아있는 믿음

둘째, 견고한 믿음 셋째 가슴으로 통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성기도는 △미국과 조국을 위해/김기호 목사 △뉴욕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해/오태환 목사 △할렐루야2013대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해/이성현 목사 제목으로 기도했다.

2부 회무는 김종훈 목사 사회로 개최기도 이병홍 목사, 회원점명 장경혜 목사, 업무보고 현영갑 목사, 감사보고 허윤준 목사(2-5월 수입 119,676달러, 지출 111,816달러), 할렐루야준비상황 보고 김수태 목사, 이단대책위 보고 유상열 목사, 영여권목회 보고 유승례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 어린이대회 강사

정승환 목사가 참석해 대회 경과보고를 했다.



퀸즈장로교회 하랑예찬 찬양팀이 교사와 함께 찬양하고 있다.

“Jesus is My Super Hero”

퀸즈장로교회 어린이 찬양집회 성료

퀸즈장로교회(박규성 목사)가 주최한 어린이 찬양집회 “Jesus is My Super Hero”가 하랑예찬(하나님 사랑 예수님 찬양) 주관으로 지난 8일 열렸다.

이번 집회는 퀸즈장로교회 5-8세 어린이 20여명으로 구성된 찬양올동팀인 하랑예찬의 첫 지역사회 오픈행사로 어린이 전도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하랑예찬은 1기 11명과 2기 9명으로, 지난 2-3년간 찬양과 말씀으로 훈련받았으며 새로운 어린이 기독교 문화 창출을 위해 구성됐다.

교육부 오건 목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적인 눈높이 전도 찬양집회를 통해 아이들이 예수님의 문화권 안에서 함께 뛰어놀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자리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어린이 찬양집회는 두개의 초대형 화면이 설치된 가운데 감지영전도사가 리드하는 하랑예찬 어린이들의 찬양과 바다위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어 스파이더맨, 배트맨, 헬릭, 아이언맨, 울버린 등 만화 속 주인공 분장을 한 교사들이 무대에 나와 활찬 퍼포먼스로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어서 스파이더맨 분장으로 등장한 김도현 목사(EM담당)가 가면을 벗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슈퍼 영웅”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한 후 예수님 분장을 한 교사가 등장했다. 말씀을 받은 어린이들은 만화 속 주인공 분장 교사들과 함께 열심히 찬양했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하랑예찬 찬양팀이 교사와 함께 찬양하고 있다.

패밀리터치를 위한 가족음악회

소나타 다 키에사 오케스트라팀 초청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를 위한 가족음악회가 6일 저녁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콘서트에는 Sonata Da Chiesa 오케스트라팀이 초청돼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교회소나타를 의미하는 소나타 다 키에사 오케스트라팀은 바이올린 박지선, 비올라 정미연, 첼로 현재기, 피아노 박윤예, 오보에 이정석 등 14명의 단원이 이날 음악회에 참석해 비발디, 모차르트, 베토

벤, 멘델스존의 곡을 연주하며 클래식 세계로 참석자들을 초대했다.

패밀리터치는 뉴저지와 뉴욕에 본부와 지부를 두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해 전문 리더십과 교육 프로그램을 교회와 지역사회에 지원하며 상담사역, 커뮤니티사역, 중재사역, 가정사역, 교육사역 등을 펼치고 있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2013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가두홍보



뉴욕교협 임신행위원회 및 할렐루야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상천 목사)가 '2013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홍보를 위해 가두 전도를 펼쳤다. 임원과 실행위원들은 지난 9일 오후 6시 소망교회(담임 박상천 목사)에 모여 합심으로 기도한 후, 한인마켓에서 약 1시간 반 가량

가두 홍보를 하며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 이날 행사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 등 평신도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 행사는 다음 주 일에도 계속 된다.

(기사제공: 뉴저지교협)



뉴욕교협 임신행위원회 및 할렐루야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필라 안디옥장학재단 20명에 장학금 수여

필라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가 운영하는 안디옥장학재단이 지난 2일 20명에게 각 1천 달러씩 총 2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 장학금은 1999년부터 매년 6월 첫째 주에 수여되고 있다. 현재까지 140여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안디옥장학재단의 목적은 스

크리스천 리더십과 우수한 성적을 가진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스문화의 다양성을 장려하며 스 재정적으로 힘든 학생들을 돕고 스지역사회와 안디옥교회 내에서 지역 봉사활동에 보답하는 것이다.

(기사제공: 필라안디옥교회)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신규주문서적을 포함한
모든 서적!!!!

SALE

잡지, CD 등 일부품목 제외

40%

+ TAX

문의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대마도

1억원

에메랄드

1억원

3저밥상

자연주의 태교 밥상

비로소 보이는 것들

고령화 가족

배를 엮다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권력의 조건

나는 천국을 보았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확실하게 개선시킬 대화 지침서!

멋진 인생을 원하면

부모는 구두를 신어라

부모는 구두를 신어라

베스트셀러
최신간 포함
40%
SALE

저희 한국서적에서는
책자 만드실 분들께
한국에서 제작하여
뉴욕으로 배송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 예수치유와 건강세미나가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 ‘예수 치유와 건강세미나’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이운영 목사)가 주최한 ‘예수 치유와 건강 세미나’가 3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신경과전문의이자 의학박사인 배성호 목사(JAMA Healing & Health Ministry)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한미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남가주지역 목회자 대상으로 열린 건강세미나에서 배성호 박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치유와 건강 △육체가사를 지니고 사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대인의 건강관리 등의 내용으로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베델건축학교 수료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선교현장에서 많은 도움 받는다

베델건축학교 핸디맨과정 제2기 수료식

미주베델교회(담임 정요한 목사)는 베델건축학교 핸디맨과정 제2기 수료식을 9일 미주베델교회에서 거행했다.

지난 4월 7일부터 매 주일 오후 8주만에 걸쳐 미국 건축물구조 및 건축도면 보는 방법, 플러밍 응급 조치와 수리방법 문짝수리와 교체, 설치방법, 전기시설설치 및 수리방법, 공구선별 및 실내 벽수리 등 가정집에서 응급으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강의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정요한 목사는 “한인 타운에 교회가 있으면서 작은 교회이지만 커뮤니티에 무엇인가 이바지할 생각을 구상하다가 마침 배기문 교수가 전문가이기에 건축학교 핸디맨과정을 고안해냈다”며 “그동안 배우고 익힌 기술로 하나님 앞에 섰는 곳에 사용하길 바란다”고 수료생들에게 당부했다.

배 교수는 “알래스카, 아리조나, 멕시코 등 선교지를 다녀본 결과 선교사들이 핸디맨 과정을 공부하고 선교지에 가면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미주감신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며, 올해 3월 목사임직을 받고 미주베델교회에서 커뮤니티 봉사사역을 맡고 있다. 이날 최경일 목사, 김치성 집사를 비롯, 모두 17명이 수료했다.

제3기 핸디맨과정은 10월중에 오픈할 예정이며 자세한 것은 (213)663-6530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베델건축학교)



한국보건복지부 장기이식 등록기관인 (사)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사안골수기증 협회(A3M)와 함께 지난 2일 벨리연합감리교회에서 골수기증 행사를 가졌다

“협력하는 교회와 커뮤니티”

한인가정상담소 목회자 컨퍼런스 성료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주최한 목회자컨퍼런스가 “협력하는 교회와 커뮤니티”라는 주제로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2시까지 가든스윗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시연 교수(칼스테이트LA 사회 복지학과)의 사회로 시작된 컨퍼런스는 테리김 변호사(한인가정상담소 이사)와 이시연 교수가 환영사를, 민중기 목사(충현선교회 담임)가 기도를 했다.

이어 ‘목회신학적 관점에서 본 한인가족의 가정폭력’이란 주제로 사무엘리 교수(클레어몬트 신학대

학원)가, ‘한인 지역사회내 대처법 및 지원’에 대해서 데보라서 소장(아태여성보호센터), 엄영아 원장(푸른초장의 집), 조앤리 변호사(LA 법률보조재단)가, “가정폭력과 정신건강”은 박해영 임상심리상담가(한인가정상담소 LMFT)와 수잔정 박사(카이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전문의)가 강의했다.

이어 김찬희 박사(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은퇴교수)가 토론을 인도했으며 다니엘 뉴먼 교수(아주사파 시픽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주최 목회자 컨퍼런스가 가든스윗호텔에서 열렸다

LA에서 한인대상 조혈모세포 기증운동전개건강세미나

생명을나누는사람들 골수기증, 미전역 확대

한국보건복지부 장기이식 등록기관인 (사)생명을 나누는사람들(이사장 임석구 목사)이 미국 전국골수기증자협회(NMDP) 산하 단체인 아사안골수기증협회(A3M)와 함께 지난 2일 벨리연합감리교회(담임 류재덕 목사)에서 골수기증 행사를 펼쳤다.

생명을 나누는사람들 상임이사 조정진 목사는 이번 벨리연합감리교회를 시작으로 향후 미국 전역의 한인교 개신교회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기독교대한감리

회 소속 미주지역 감리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국 장기이식등록기관인 ‘생명을 나누는사람들’에서 관계자가 나와 한인들의 기증을 함께 독려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벨리연합감리교회에 출석하는 18-44세의 교인 중 총 22명이 골수를 기증했다.

▲골수기증 문의: (213)625-2807

(정리: 박준호 기자)



YNOT재단의 기금모금행사가 몬트레이파에 위치한 루미나리스 레스토랑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부교계 게시판

2013년 남가주밀알선교단 사랑의캠프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영선 목사)에서는 서부지역(밴쿠버, 북가주, 남가주) 사랑의교실 연합으로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캠프를 UC산타바바라에서 6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개최한다. 올해로 15회 째를 맞는 사랑의캠프는 400명(장애인 125명, 봉사자 225명, 스텝 50명)이 참가하며 문화선교단인 Passionate People of God(PPOG)팀과 ANC온누리교회 청년팀(The Roof Above Christ - TRAC)이 함께 찬양과, 댄스,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을 이끌게 된다. 참가비는 170달러 ▲문의:(714)522-4599



크리스천문학 제 24집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

“크리스천문학” 제 24집 출판기념회

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회장 정지윤 목사)가 제 24집 크리스천문학 출간기념회를 개최했다.

1일 오전 11시 작가의 집에서 고광이 사무국장 사회로 개최된 출판기념회는 1부 예배, 2부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말씀을 전한 이정현 목사(나성서부교회)는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세 가지 방법은 배움과 솔직한 삶, 플러스 발상으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솔직함으로 마음을 열면 대인관계가 원

활해지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즐거워진다”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2부 기념식에서 정지윤 회장은 “지난 27년 동안 24권에 문학집을 출간했는데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후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이선주 목사와 최선호 목사가 축사의 말을 전했다.

(기사제공: 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

다민족까지 섬기는 재단으로

YNOT재단 기금모금행사 성황

나성영락교회 산하 YNOT재단(이사장 박인수 장로)이 주최한 제3회 연례 기금모금 만찬이 6일 오후 6시 몬트레이파에 위치한 루미나리스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스텔라김 디렉터의 환영사로 시작된 기금모금 만찬은 박인수 이사장의 인사말, 김경진 목사(영락교회)가 말씀을 전했다으며, 마이클리

목사(Youngnak Celebration Church)의 축사, 크레이 스미스 회장(남가주 곳일)이 연설, 그리고 유희자, 홍병일, 김영경의 축하공연으로 이어졌으며 박희민 목사의 식사기도 및 축복기도로 이어졌다.

김경진 목사는 “이민교회로서와 이낯재단을 통해 교계를 비롯해 정부와 사회에 이르기까지 섬겨왔다. 와이낯재단은 장애인, 노인센터, 양로병원 등 커뮤니티 내에 한인은 물론 다민족까지 세워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와이낯재단은 지역사회를 보다 더 섬겨나갈 것”이라 말했다.

김 목사는 “영락교회 내에는 영어목회파트가 있다. 그분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펼쳐나가 고자 한다. 또한 뜻있는 교회들과 와이낯재단과 같은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상에 해야 할 역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박준호 기자)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 세대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예배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물티슈 판매

TOLL FREE: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The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SEVIS I-20 FORM 발행

●학위: 학사, 석사, 박사학위

●전공: 신학, 기독교교육학, 유아교육학, 목회상담학, 심리학, 선교학, 세계문화학, 문예창작학

●특전: 월-금 오전, 오후 Class, 다양한 세부전공 선택, 월리엄캐리대학 복수학위 수여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TEL (213)736-6500

FAX.(213)735-6504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고교도덕교과서 “성소수자 도덕적 문제없다”

국민일보, 국내 도덕 교과서 · 모의고사 긴급점검

고등학생용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를 편향되게 옹호하는 내용이 기술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집필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10일 국민일보가 교과부의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교학사)를 분석한 결과, 이 교과서 91~93쪽에서 ‘성적 소수자 문제’를 다루며 찬반 논리를 균형있게 다루지 않고 이들을 옹호하는 논리만 일방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과서는 “성적 소수자가 의학적으로 비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지로 선택하지 않고, 성적 소수자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으며, 동성애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졌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적 소수자가 비도덕적이고 말할 정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성적 소수자를 비도덕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나,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단정적으로 성적 소수자를 옹호했다.

집필자는 특히 이 대목의 바로 앞 부분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와 실태, 이들을 옹호하는 논리를 상세히 소개해 학생들이 성적 소수자의 주장에 공감하도록 유도했다.

교과서의 편향된 기술은 학생들의 시험에도 반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주 실시한 고등학교 2학년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시험에는 지난해 5월 한 동성애자가 서울시 11개 자치구에 플래카드로 내걸었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라는 문구가 자문으로 출제됐다.

최근 출제된 고3 모의고사에서도

‘언젠가는 내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면서도 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언젠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그러하듯이 나도 사랑하는 사람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는 지문이 제시됐다. 이 문제는 특히 ‘성적 소수자의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물으며 ‘성적 소수자의 가족 구성권을 인정해야 한다’ ‘성적 소수자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의 편견에서 비롯되었다’ 등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편향된 논리들을 집중 소개했다.

문제의 교과서를 집필한 교사는 이에 대해 “교과부가 편낸 교과서 집필기준에 따라 썼을 뿐”이라며 “집필자 개인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편낸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성적 소수자

의 문제를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접근하되, 다수의 취향이나 견해가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결론을 열어놓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의 교과서처럼 단정적으로 한쪽의 주장에만 무게를 실는 것은 기준에 위배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집필기준에 어긋나는 내용이 발견되면 해당 출판사에 의견을 전달하고 수정계획서를 보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과서는 교과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 심사를 했으며 지난해 3월 초판을 발행하고 지난 3월 2쇄를 발행해 고등학교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이용희 교수는 “동성애자는 AIDS발병 위험군인데도 동성애가 AIDS의 원인이 아니라고만 기술하는 등 동성애 옹호론 일색인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까 생각하니 답답하다”면서 “해당 내용의 삭제에 관계 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 많다”고 말했다. 일베 사이트에서는 개독, 먹사 등 기독교를 비하하는 단어들이 넘쳐나고, 뚜렷한 이유 없이 교회를 비난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일부 기독교인마저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편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제호 사무처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제대로 된 사실도 없이 마녀사냥하듯이 하는 비판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회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하지만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최바울 대표의 반성, 진정성 있나?”

예장합신총회 공청회에서 진정성 여부에 대한 공방 벌어져

[CBS]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3일 이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인터넷선교회 최바울 대표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예장 합신총회가 인터넷선교회 최바울 대표에 대한 공청회를 연 것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최 대표에 대한 이단성을 1년 동안 연구한 뒤 올해 9월 정기총회에서 결론 내리기로 결정한 때 따른 것이다.

총 5시간 동안 진행된 공청회에서 최바울 대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해 한국세계선교협의회로부터 지도를 받고 고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단 전문가들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예장합신총회 이단상담소장 박형택 목사는 “최바울 대표의 사상이 이단으로 규정된 배워야 감기동씨의 주장과 닮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최바울 대표가 인간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다. 또, 이런 사정으로 인해 사단이 예덴동산에서 인간에게 접근해 범죄케 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 수밖에 없었으며, 그 사정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을 고소하도록 하여 합법적으로 마귀를 정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최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책임을 마귀에게 돌리고 인간창조의 목적에 마귀를 멸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단적 사상이라고 꼬집었다.

박 목사는 또 “최 대표가 육체가 없는 영은 인간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단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계에

서 신들의 전쟁을 벌인다고 주장한다”면서 “성육신에 대한 왜곡된 사상을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최 대표가 사단을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대결자로 보고 있으며,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를 ‘지식의 나무’로 보고 인간이 발전시킨 지식과 문명이 음녀와 적그리스도의 도구가 된다고 주장하는 등 정통 신학에서 상당히 벗어난 이단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선교회 최바울 대표는 “평신도 선교단체가 이슬람권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시도’가 있었다”면서 “3년 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마자 관련 내용을 책에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최 대표는 오류를 인정하고 삭제했는데도 3년 동안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지적받은 직후부터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사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하나님의 사정’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바울 대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평신도이단대책협의회 이인규 소장은 “최 대표가 지난 2011년 한국세계선교협의회로부터 지도를 받고 잘못을 고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최 대표가 이단적 사상이 담긴 책을 회수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했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회수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단적 사상이 담긴 책들은 여전히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또, 인터넷 내부에서 이뤄진 강연 등을 살펴보면 최 대표와 인터넷이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회의 지도 이후에도 이단적 사상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배워야 사상은 지도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았고 다른 여러 가지 책에 나타난다”면서 “최 대표가 쓴 책 한 권만 수정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최소한 책 5권에 이단적 사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은 예장 통합측으로부터 ‘예의주시와 참여자제’, 예장 고신측으로부터 ‘균형을 상실한 선교운동’으로 보고된 바 있다.

현재 예장 합신총회와 합동총회가 인터넷 최바울 대표에 대한 연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 교단 정기총회에서 이단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일베, 기독교 비하 도 넘어

무분별한 비난 넘쳐나...주의 깊게 살펴봐야

[CBS]인터넷 사이트 일베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베란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준말로, 여성 비하나 극우적인 표현 등이 난무해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기독교를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발언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베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교회에서 사기치고 있는 수범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새벽기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이들은 성경에 새벽기도가 나와 있지 않다는 등의 자의적인 해석을 마치 사실인 양 올리고 있고, 교회들이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가 교인들이 교회에서 빠져 나올 수 없도록 하는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글을 보면 관천회 목사님과 김삼환 목사, 김중호 목사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 목회자들이 비판 받는 이유는 평양과기대 설립에 돈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는 이들을 터무니없이

역적, 반역자라고 부르고, 응징해야 한다는 등의 선동적 문구가 난무하고 있다.

한국교회 교유의 전통인 새벽기도를 비판한다거나,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이 북한에 지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목회자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관천회 목사나 김삼환 목사 등은 한국교회 내에서도 보수 내지는 복음주의자로 분류되는데, 이들에게 중북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게 교계의 시각이다.

양희송 청어람아카데미 대표 기획자는 “보수와 진보라는 단순한 구도로 모든 것을 파악하다보니, 그들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범하는 경우

개신교 성지 ‘고대도’ 기독교 순례지 개발

충남 보령시는 백석대와 손잡고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 성지인 고대도(古代島)를 기독교 순례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보령시는 지난 7월 백석대와 고대도 관광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대도를 기독교 순례지로 개발하기 위해 상호 정보 교류와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관광 인프라 조성하고 관광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이다. 백석대는 지난 4월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고대도를 방문한 뒤 보령시에 협약체결 의향서를 전달했다.

안면도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해상에 있는 고대도는 독일인 선교사 칼 귀츨라프가 1832년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머무른 곳이다. 귀츨라프 선교사는 영국 동인도회사의 통상개척선 로드애머스트호

를 타고 고대도에 도착해 기독교를 전파하고자 했으나 조선 정부의 통상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체류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한문 성경과 전도서를 나눠주고 감자 재배법을 전수했다. 어학 능력이 뛰어났던 귀츨라프 선교사는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중국 관련 선교잡지에 ‘한글에 관한 소견’이란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조선에 파종된 하나님의 진리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없어질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푸집한 열매를 맺으리라”는 글을 남겼다.

고신대 이상규 교수는 “1816년 9월 영국 해안탐사선이 충남 서천 마량진에 상륙해 조선인 침사에게 영어 성경을 전달한 일이 있지만 이를 한국 개신교 선교의 기원으로 보기

는 어렵다”면서 “귀츨라프의 내한이 개신교 전래의 시작이며 조선을 서양에 소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고대도에는 ‘귀츨라프 선교사 기념 고대도교회’가 있다. 2005년 예장 합신 총회가 세운 이 교회에는 귀츨라프의 선교활동을 소개하는 전시관이 설치돼 있다.

백석대 최갑종 총장은 “고대도 관광자원 개발과정에서 기독교 문화 콘텐츠와 테마를 발굴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체류관광 상품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범신 작가(왼쪽)와 이형규 집행위원장

서울에서 꽃피는 책들의 축제!

2013서울국제도서전, 6월 19-23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축제가 6월 19일부터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책, 사람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도서전은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풍성한 규모로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 중에 있다.

이형규 집행위원장은 “영원한 청년작가로 불리며 지난 40년간 끊임

없는 작품 활동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는 박범신 씨가 이번 도서전 개최의 의미와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며 이번 도서전의 얼굴인 홍보대사를 소개했다.

소설 ‘은교’로 더욱 알려지고 최근 ‘소금’을 출간한 박범신 작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전시회인 서울국제도서전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이 새로운 출판문화 창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 도서전은 20개국 580개사 771부스가 참가했던 작년보다 야심차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기사제공: 쿠팡출판사)

모나리자

스킨 케어

1회 서비스 가격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워시절 완비 (*두피 클리닉)**

비타민+고주파	1회	\$35	10회	\$300
여드름	1회	\$40	10회	\$350
줄기세포	1회	\$120	10회	\$1,000
아쿠아솔루션	1회	\$100	10회	\$800
블어진팔뚝 슬림	1회	\$30	10회	\$250
배경락	1회	\$35	10회	\$300
등경락	1회	\$40	10회	\$350
전신경락	1회	\$120	10회	\$1,000
하지정맥 (Special 기계)	1회	\$45	10회	\$400

*영구화장 최신기법 - 아이라인/눈썹라인/입술라인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100	유 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_____	목 사 ☐
	영 어 : _____	평 신 도 ☐
배달 주소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선교 펄리핀

사역에 함께하신 은혜로우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주안에서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곳 필리핀의 세부에서는 올해 2013년도 여름 가뭄이 심했습니다.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계속된 가뭄은 이곳의 아재가격을 2-3배 치솟게 해 7-8페소 하던 사왓(필리핀의 통속적이 열매채소)이 20페소가 되는 등 서민들의 삶을 고달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세부 근해에서 소규모의 태풍이 일어나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지난밤도 한차례 강풍과 함께 3-4시간정도 비가 억수로 쏟아지며 해갈이 된 듯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 두란노 신학교 '13학년도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4월 10일 모두 6명의 두란노 신학생들(넬스터 곤잘레스, 전도사 레니 바알, 알투로 가비노, 제니 베라스코, 체라디 아란테, 로즈안 이조랑고)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세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셔서 졸업생들에게 축복과 격려를 해주셨고 80여명의 내빈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졸업식에서 졸업생 각자는 학교 생활가운데서 자신의 변화됨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일, 또 자신의 사역계획과 미래의 비전 등을 발표하며 참석한 모든 이에게 은혜와 도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2명의 전도사는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 중에 있고 다른 사역자들은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 교회를 돕는 교사와 협력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들의 사역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사역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란노신학교의 2013-14 새 학년도가 7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두란노 신학교의 계속되는 사역에 헌신된 주의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부하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영성과 능력의 성장이 이루어져 이 나라와 세계선교에도 참여하는 주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학년도에도 진실된 주의 청년들의 등록 및 입학에 위하여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의 소식입니다. 4월 18, 19양일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8개 교회에서 27명의 교사들이 참석하여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봉사할까?'라는 주제로 교육을 받고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저희가 준비해준 교재와 활동자료, 시상품을 가지고 개 교회별로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열렸으며 4월 28일 주일에는 부모들과 이웃들을 초청해 종업식과 발표회를 했습니다. 예년과 같이 연 19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해 주안에서 즐거운 천국잔치가 되었으며 많은 부모님들이 큰 관심을 보여 어린이 거리성경 공부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제 저희의 어린이사역은 이곳에

새롭게 하고 훈련시키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제 양성을 위한 장학사역에 주의 은혜로 인한 작은 행복의 소식이 넘칩니다. 2-3명으로 시작하여 10배로 확장되어 이제 25명의 인재를 확보한 장학사역에 작은 행복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시작 멤버였던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여 초등학교 교사들로 취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 맡은 자리에서 복음을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세부의 명문대에 장학생들로 입학이 확정되어 지역에서 빛을 내게 되었고

가족의 전도에도 큰 몫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장학생의 선정에는 부모들이 직접 찾아와 신청을 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다짐도 합니다. 무엇보다 마약과 노름은 물론 폭력과 살인사건도 발생하는 지역에서 자신을 믿음과 말씀으로 지키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위에 큰 귀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혼, 술과 노름에 중독된 부모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학생들을 볼 때에 그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위에 함께 하셔서 낙심치 말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이 시대의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뿔랑바또 교회를 은혜 중에 시작하였습니다. 두란노 신학교와 선교센터가 있는 뿔랑바또 지역과 인근 핏오스 지역은 특별집회와 모임에만 특별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 특별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던 멤버들의 요구와 지역의 성장을 위해 교회개혁의 필요를 가지고 뿔랑바또 기독교교회로 명명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임시로 두란노 미션센터에서 매주일 예배와 청년모임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꾸준한 교육과 훈련으로 신실한 교사를 만들고 일꾼들의 발굴육성 등 새로운 많은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피살본 집사가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팔람반 중앙교회의 초대 집사 부부인 알버트, 이시와 피살본 집사의 막내딸인 살로메가 간질병의 증상이 나타나 온 가족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진찰결과 2년간 꾸준한 약물치료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원하기는 이일을 통하여 온 가족이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며 믿음이 생활화가 되어 참 크리스찬으로 자라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성, 이근순 선교사 드림 ▲이메일주소: paulruth@hanmail.net

투고서

정권수 선교사(온두라스)

[편집자] 정권수 선교사는 온두라스에서 태권도 사역을 한지 8년, 지난 3년간은 육사생도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지난 5월27일 초대 육사 태권도 사범인 고 송봉경 장로가 사망한지 5주년 기념일이다. 정 선교사는 송봉경 장로의 뒤를 이어 육사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정 선교사는 돌도 없는 다정한 친구로 이곳에서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정 선교사는 오는 9월26일 온두라스 육사 창설 55주년 만에 3학년생도 중에서 첫 유단자가 나온다면 송 사범이 뿌린 씨앗을 걷는 의미에서 헌사를 바친다고 전했다.

지금 비록 당신을 볼 수 없지만

-고 송봉경 장로님의 5주기에 부쳐

지금 비록 당신을 볼 수 없지만
당신이 이 땅에 심고 간 태권도는
아주 커
거목이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 생명을 살리듯
그것은
당신의 사랑과 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5월 어느 날
뜨거운 태양 아래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며 먹구름 속에
역수같이 쏟아지는 비

그 빗줄기가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한 울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32년간 대사로
살아 온 땅과 혼신의 정열!

당신이 가고 없는 날을
5년간 눈물을 삭이며
지금까지 살아온
아내와 자녀들

당신의 자애로운 눈과 웃음은
영혼깊이 잔잔히 깔려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심은 태권도는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뿌리가 내려져
단단히 내려져
조금도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초석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사랑
최고의 유산
사랑과 아픔
생명과 환희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그 이름이 이 세상에
온누리에 가득차 회자합니다

지금 비록 당신을 볼 수 없지만
당신이 이 땅에 심고 간 태권도는
아주 커
거목이 되었습니다.

[송봉경 장로 약력]

1945년 1월 4일 인천에서 출생. 2008년 5월 27일 온두라스에서 사망. 유도대학 교수. 국가 상비군. 1976년 온두라스 육사로 장병 받아 초대 교관으로 온두라스에 정착. 육사, 경찰사관학교, 대통령 경호실, 국가대표 올림픽 대표팀을 맡아 태권도를 온두라스에 보급. 현 대통령 Porfio Lobo Sosa를 길러냄. 온두라스 정부로부터 최고의 명예훈장 받음. 슬하에 1남1녀. 아들은 미국에서 전도사로 사역, 딸은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미첼 대사의 부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00 주일 5부예배: 오전 1:30 주일 6부예배: 오전 3:30 주일 7부예배: 오전 5:30(월-토) 주일 8부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 521-0891, Fax (714) 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전 7:30 주일 7부예배: 오전 5:30(월-토) www.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 913-4499, Fax (323) 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박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주일 5부예배: 오전 2:00 주일 6부예배: 오전 3:30 주일 7부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413-1600, (F) (213) 383-2604 3119 West, 6th L.A., CA 90020 Tel. (213) 383-2600, www.laopendoor.org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주일 6부예배: 오전 2:00(청년) 주일 7부예배: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org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주일 5부예배: 오전 2:00(청년) 주일 6부예배: 오전 5:30(월-토) Tel. (323) 939-7323, (F) (323) 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주일 5부예배: 오전 5:30(월-토) 주일 6부예배: 오전 6:00(토) Tel. (323) 388-7101, (F) (323) 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5:30 주일 4부예배: 오전 6: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전 11:00 Tel. (562) 691-0691, (F) (562) 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두드만교회 담임목사 : 김현원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00 주일 6부예배: 오전 8:00 주일 7부예배: 오전 5:40(월-토) Tel. (213) 481-2779 / Fax (213) 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전 6:00(월-토) www.scrdm.org Tel. (213) 215-8523, Fax (213) 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망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주일 5부예배: 오전 1:45 주일 6부예배: 오전 3:30 주일 7부예배: 오전 6:00(월-토)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laopendoor.org	대동성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주일 5부예배: 오전 6:00 주일 6부예배: 오전 7:30 Tel. (310) 719-2244, Fax (310) 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ongdo.org	등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 4부예배: 오전 5:30 주일 5부예배: 오전 6:30(토) 주일 6부예배: 오전 7:45 Tel. (213) 483-6625, Fax. (213) 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중앙선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중문예배: 오전 9:30 3부 평일예배: 오전 11:00 주일 1부예배: 오전 12:30 주일 2부예배: 오전 7:00 주일 3부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 466-1234, Fax (323) 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우리의 품 를 위해 일하는 선교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4:00 Tel. (213) 559-7728 (전화 서비스), Fax. (213) 210-8890 1215 Gabriel Garcia Marquez St., FB L.A., CA 90033	드림교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2:00 주일 6부예배: 오전 8:00 주일 7부예배: 오전 6:00(토) Tel. (626) 793-0880, 0200 Fax (626) 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전 7:30 주일 7부예배: 오전 6:00(월-토) www.samsungchurch.org Tel. (626) 690-9800, Fax. (626) 690-9804 501 S. Lido St., La Habra CA 9063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주일 5부예배: 오전 5:30(매일) 주일 6부예배: 오전 7:00 주일 7부예배: 오전 11:00 Tel. (310)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www.laopendoor.org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 송정명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주일 4부: 오전 11:45 주일 5부: 오전 6:00 www.mijoopeacechurch.org Tel. (949) 857-5425 / Fax. (949) 857-26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손인식 주일 1부: 오전 7:30 주일 2부: 오전 9:00 주일 3부: 오전 11:00 주일 4부: 오전 12:30(영양) 주일 5부: 오전 2:00(청년) 주일 6부: 오전 7:30 주일 7부: 오전 6:00(월-토) Tel. (949) 854-4010 / E-mail: bethe@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 4부예배: 오전 7:30 Tel. (562) 694-6214 1751 W. La Habra St., La Habra, CA 9063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주일 5부예배: 오전 1:30 주일 6부예배: 오전 5:30 Tel. (626) 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 김만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전 7:30 주일 7부예배: 오전 6:00(월-토) Tel. (818) 952-2449 13005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전 7:30 주일 7부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745-9191(CH), (818) 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전 1:45 주일 5부예배: 오전 7:30 주일 6부예배: 오전 5:30(매일) 주일 7부예배: 오전 11:00 Tel. (818) 249-2871, Fax (818) 249-0516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한종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주일 5부예배: 오전 5:30 주일 6부예배: 오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 857-5425 / Fax. (949) 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주일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전 5:30 주일 5부예배: 오전 6:30(토) Tel. (213) 245-409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일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양)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전 5:40(월-토) 주일 6부예배: 오전 11:00 주일 7부예배: 오전 6:00 Tel. (213) 384-7274, Fax (213) 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주일 5부예배: 오전 2:00 주일 6부예배: 오전 8:00 주일 7부예배: 오전 5:30(월-토) 주일 8부예배: 오전 6:00(토) www.gracemc.com Tel. (714) 446-6207, Fax. (714) 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주일 5부예배: 오전 7:30 주일 6부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749-4500, Fax (213) 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j.org	창대교회 담임목사 : 이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전 1:45 주일 5부예배: 오전 7:30 주일 6부예배: 오전 5:30(월-토) www.gpc.com Tel. (909) 388-2040, Fax. (909) 388-2041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4008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 4부예배: 오전 5:30(월-토) www.conerstonev.com / e-mail: pastor@conerstone.com Tel. (310) 530-4040(Ch), Fax (310) 530-3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전 5:30(청년) 주일 6부예배: 오전 10:00 주일 7부예배: 오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8 ■ N.Y.: Tel. (718) 886-4000 Fax. (718) 886-4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선교 편지

우간다

쿠미 프로젝트 5월의 소식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살전5:14-16, 24).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동역자 여러분들께 평강의 문안을 드립니다.

약 2주일 만에 참으로 비다운 비가 시원하게 내려서 대지를 적시고, 물탱크에 물도 채워주고, 더위도 좀 식혀주고 해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요! 우리들의 매일 매일의 생활에도, 그리고 우리 쿠미대학교와 우간다와 한국에도 이처럼 시원케 하는 소식들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한-우간다 수교 5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양국 간에 좋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영향이 우리 쿠미대학교에도 선하게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의대인가를 위한 최종 합동회의 대신에 다시 한번 현지실사를 나오겠다고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에 다녀갔던 의사협회와 합동으로 6월 17-19일에 방문합니다. 이 모든 일정 중에 주께서 선하게 간섭하시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기다리는 학생들에게도 기쁜 소식이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설립학장님, 부학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미루어 놓았던 강의실, 실험실, 기숙사 등의 마무리 공사와 기자재 구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사 때까지 다 완성될 수는 없겠지만 인가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므로 7월말까지는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8월말 개교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힘써 기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준비 중인 서버기증(서울대 전산원), E-LIBRARY 서버작업(Linksoft) 등도 원활히 진행되어 8월말 개교 전까지 학교에 도착할 수 있게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두 기관에서 적극 도와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의대(김미경교수팀)와의 원격강의 시스템 협력도 잘 이루어져서 실사가간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실험실을 위한 과학관 1층공사도 80%이상 마무리되었으므로 이 또한 6월말까지는 가능할 것인데 마지막 잔금과 2층 지붕공사까지 필요한 비용이 잘 마련될 수 있게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태양광전기 시설은 일단 설치가 끝났고, 지난 한 달간 문한규, 김성현, 김기현 선교사님들이 시험가동을 하면서 열심히 보완하셔서 이제는 그런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듯합니다. 아무튼 지난 한 달의 기간 동안에도 학교에 늘 문제가 되었던 정전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었고, 이제 각 건물의 전기 상황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개선하면 더 나아지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직 설치하지 않은 폐널들은 앞으로 의대와 과학관 지붕에 설치해서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총남대 농생대 교수님들이 애써주신 농대개설을 위한 과제는 아쉽게도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학교가 준비한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학과형태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이현수 장로님과 또 총남대 농생대교수님들 그밖의 여러분들의 도움과 성원으로 잘 준비할 수 있게 기도해주시시오.

또 energy technology와 biotechnology학과 개설을 위해 애쓰시는 문한규 선교사님, 김성현 교수님과 이를 도와주시는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및 나눔과 기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생물학(biology) 강의를 맡아주실 교수요원이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찾아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컴퓨터학과에서 송실대 국방장학생으로 유학간 데리군은 후천성으로 시각장애가 심하여 각막이식을 받아야만 하는데 기아대책기공에서 수고해주셔서 내일주일 오후에 임원에서 월요일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기아대책 생명지기 팀에게 감사를 전하며, 모든 수술이 잘 진행되어서 회복된 시력으로 남은 공부도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이제 이번 주 시험을 마지막으로 학년말 방학에 들어가고 8월 19일부터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수님들과 직원들 그리고 학생들 모두에게 의미있는 마무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 공식 비공식으로 전부 45명에게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학기에는 더욱 늘어갈 예정이고 또한 의대나 이공계 학과생들에게도 따로 지급할 예정이므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 올바른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도자들을 잘 양성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도 기쁜 마음으로 소식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내내 평강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간다 쿠미땅에서
쿠미프로젝트 김선영 선교사 드림
▲이메일: sykim@cnu.ac.kr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예수님께서 종말이 되면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거짓 메시야가 많이 등장할 것이라 예언하셨다(마24:7, 11). 7절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본문에서 민족은 인종으로도 번역된다. 지구촌은 국제화를 논하지만 도리어 편협한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가 부활하고 있는 형국이다. 네덜란드의 선교학자 헨드릭 크래머는 인종주의, 민족주의를 ‘원시적 공동체주의’라고 하였다. 특히 자기 민족이나 인종을 ‘신의 선민’으로 여겨 더 배타적이고 공격적이 된다. 국제화 시대는 전 인류를 하나로 품은 세계주의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일본과 중국 지도자들이 벌이는 민족주의 경쟁은 한심할 정도이다.

미국 사회학자 피터 L. 버거는 20세기 후반의 미국 사회를 ‘이단의 시대’에 비유한 바 있다. 버거는 아마도 기독교 이외의 모든 것을 이단이라고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린 것 같다.

요즘 미국의 주요 일간지에는 연일 중국의 이단 “전능하신하나님교회”가 전제 한 면으로 교리 광고 중이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모양이다. 핵심은 여자 메시야가 종말에 이르러 중국에 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의 이단연구자들이 이 이단을 다루고는 있는지 궁금하다.

보스턴 테러 이후 영국에서 러시아에서 연이어 테러가 일어났다. 영국테러는 끔

이슬람주의자들의 연이은 테러로 구라파가 불안에 떨고 있다. 대낮 사람들이 많은 대로에서 참수를 당하는 끔찍한 살해 장면은 글로도 형언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한 젊은 부인의 용감한 행동이 칭찬을 받고 있다. 영국인들이 반이슬람교 대모를 하자 카메룬 총리를 비롯하여 언론들은 이번 일이 종교로 인한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유인준슨 “테러가 참 이슬람교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범들은 테러야말로 이슬람교의 원리라고 고집한다. 종교 테러는 종말까지 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네덜란드의 정치인 기르트 월더스 의원은 영국 런던 모스크에서 테러를 선동하는 한 이맘의 가르침을 녹화한 피트나(Fitnah) 관련 영상을 유포, 이슬람의 폭력성과 위험성을 알리고자 했다. 당시 관련 영상은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참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것이 공개되자 언론은 이렇게 잔인하고 과격한 영상을 공개한 월더스의 행위 자체를 ‘과격 행위’로 공격했고 결국 영상의 유포는 중지되었다. 이 일로 월더스는 이슬람주의자들에게 테러 대상이 되었다. 테러를 가르치고 선동한 행위 자체를 과격하다 말하지 않고, 그런 사실을 언급한 것을 과격하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문명충돌은 아니다”

계속되는 테러에도 불구하고 서구 일부 지식인들은 이런 일들이 결코 이슬람과 서구의 문명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의 저서들을 계속 출판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임마누엘 토드와 유세프 쿨바주는 “문명의 랑데부”(일본어 판 『文明の接近』: イスラム vs 西洋の虚構)(騰原書店, 2008)에서 충돌에는 서구의 책임도 있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그런데 정작 테러의 원인분석은 사회학적으로 혹은 국제정치로 해석한다. 이러한 논리에 한국 내 동조자들이 많다는데 문제가 크다. 테러범들은 종교적 확신으로 테러를 하는 ‘종교확신범’인데도 종교적 관점을 무시하고 서구에 책임을 돌리는 논리는 학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슬람교의 중동인이나 아랍인들만 피해자가 아니라 모든 비서구 나라들도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에도 150만명의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 자살 테러범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그들이 우리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테러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느 인간사회든지 다 문제가 있는 법이다.

과거로 돌아가는 일본극우파: “전통주의의 유령”

최근 오사카 시장과 기타 일본 극우파들의 망언에 대해 국제사회 또한 우려와 비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본 내 지식인들과 기독교 지도자들도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일본정치학자 고무로 나오끼(小室



直樹)는 저서 “일본국민에게 고향”(2005년)에서 일본은 아직도 과거에 얽은 것이 지금도 옳다는 사상이 강하며 전통주의라는 유령이 살아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일본 천황교와 기독교의 유사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스라엘이 선민이듯 일본도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가 태한 나라이다. △천황도 신이며 사람이다(瓊人神: 아라히토카미, 칼케돈 신조의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사람이라는 신학을 차용한 것으로 해석한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아마테라스오미카미도 일본 땅을 천황의 자손들에게 주었다

신학자 니사타니 고오스케(西谷幸介)는 일본의 신도를 정치적 종교로 해석한다. 미국의 한 국제정치학자는 일본의 극우파를 이미 종교적 정치적 원리주의로 단정한 바 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원리주의와 같이 일본의 원리주의 또한 △배타적이고 교만한 진리관을 가진다.

△과거 자기 종교의 황금시대가 있었다고 착각한다. 18세기 수호파가 대표적 케이스. 수호학파의 거장 가이타꾸 세이시(會澤正志)는 “神州는 태양이 나온 곳이며 원기가 시작한 장소”라고 말한다. 빈라덴도 “아라비아는 알라의 신성한 땅임으로 외국인, 특히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발을 들여놓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외부 문화에 배타적이다. 기술은 서구의 것, 종교와 사상은 일본의 것을 고집(화환양제). 이슬람교 원리주의자들도 서양 세속주의와 기독교를 철저히 배격한다.

△테러를 정당화한다. 천황 비판자들이 많은 폭력을 당하거나 살해당했다. 그럼에도 일본의 건전한 지식인들과 신자들은 이러한 극우파에 맞서고 있다.



찍하다. 테러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반이슬람교 데모가 갈수록 심해져 영국 내 무슬림들이 불안하다고까지 보도하고 있다. 아시아의 종교충돌 또한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구촌 곳곳, 특히 나이지리아,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간을 비롯, 시리아 내전 등으로 이슬람교 국가가 시끄럽다. 최근 알카에다 테러 집단은 니제르로 이동, 이에 대한 대응으로 프랑스 군대가 이곳에 출동, 주둔 중이다.

서구를 불안하게 하는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

보스턴 테러 이후 영국과 러시아에서



변화하는 글로벌 선교

소아시아에서 1세대 선교사로 26년간 사역했고 현재 GMS 선교훈련원장으로 미래의 한국 선교사를 양육하고 있는 조용성 선교사의 글로벌 선교의 이론과 현장과 전략을 담은 책이다. 오늘날 선교의 이슈, 동향, 전략을 이슬람, 서구 기독교와 연계하여 예리하게 파악하고 균형있게 선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용성 지음 / 536면 / 20,000원 / 신국문 양장



사도행전 주해

프론티어스(Frontiers) 창설자이자 총대표인 그렉 리빙스턴의 사도행전 주해서. 타종교 지역,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 들어가 개척하는 사역자를 위해 성령의 능력과 적응, 자비량 사역, 신학의 기초, 박해 등에 대해 사도행전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어서 선교 사역자들에게 제자훈련 교재로서 소그룹으로 토의하기에도 훌륭한 책이다.

그렉 리빙스턴 지음 / 김동현, 김수용, 이현주, 전병희 공역 / 536면 / 20,000원

사자성어로 된 복음행전

성경에서 자주 대하는 구절을 사자성어(四字成語)화하여 해석을 달고, 관련 성구를 기록하여 성경 구절을 한자로 친숙하고 흥미롭게 익힐 수 있도록 새롭게 시도한 책이다. 성경순 편집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으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한자를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

김인식 편저 / 312면 / 13,000원



힐링 큐티

힐링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되어야 한다. 힐링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인데 우리의 진정한 힐링 멘토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책은 매일 한 테마씩 40일 동안 큐티를 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얻도록 구성되었으며, 스스로 힐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게 하며, 구역공파나 팀모임 교재로도 좋지만 혼자서 사용하기에도 충분하다.

박공서 지음 / 342면 / 12,000원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36)

5. 보수적-복음적 기독교 교육 (Conservative-Evangelical Christian Education)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다섯 번째 성격, “보수적-복음적 기독교 교육”(Conservative-Evangelical Christian Education)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인교회들의 보수적-복음적 기독교교육의 강점들 중 “성경중심적 교육(Biblical/Bible-Centered Education)”에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중심적 교육(Biblical/Bible-Centered Education)은 우리 한인교회 교육의 보수적 복음적 교육이 가지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강점이자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중심 교육은 우리 한인교회 기독교 교육의 현재적 성격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유지하고 지향해야하는 바입니다. 사실 이는 모든 교회들이 지향해야 하는 원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

명할 세 가지 요소들 뿐 아니라 우리 교육의 A부터 Z까지 속속들이 성경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는 교육의 내용이 성경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육사역 현장을 떠올려 보고 유치부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의 내용들을 평가해 볼 때, 그것들이 성경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이 가르치는 덕목들을 중심하여 가르치고 있다면, 이는 틀림없이 그 교육내용이 성경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말씀을 이야기 형태로 가르치던, 청소년들에게 약간의 조직신학적 해석이 가미된 성경의 교리들을 가르치던, 혹은 어른들에게 특별한 한권에 집중하여 심화된 성찰을 나누며 가르치던 상관없이 성경말씀을 그 내용의 중심에 둔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성경중심적 교육



정 신 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초의 회심과 삶의 과정으로서의 회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부 지체들을 섬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즉 겸손으로 그 교육의 원칙을 삼고, 그 목적은 “제자도”에 두었습니다.

셋째 요소는 교육의 기본가정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 교육의 주체(subject), 대리인(agent), 대상(object) 및 상황(context; culture) 등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 우리 교회들에도 비성경적인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 교육철학들의 영향력이 이미 많이 미치고 있는바, 성경적인 교육의 기본가정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의 실천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본 가정이라 했을 때, 말씀이 하라는 데까지 하고 말

성경중심적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3요소 필요 3요소: 교육내용·교육 원칙 및 목적·교육기본가정

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 말하고 또한 시행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지만 세속화가 극대화된 현대사회에서 말로만 겉으로만 주장될 뿐 “실행”되고 있는 교회들을 찾아보기란 참으로 힘들다. 기독교교육의 현실을 둘러보면 실제로는 성경중심적 교육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며, 심지어는 성경중심적 기독교교육이 시대에 뒤쳐진 것이라 여기는 교회들이 왕왕 있기도 하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인교회들은 보수적 복음적 신학을 바탕으로 비교적 올바른 성경중심적 교육을 이행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한인교회들이 “성경중심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레아만 사역자들은 성경중심적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자신들의 사역이 실제로 성경중심적 교육인지의 여부, 미흡한 면들은 없는지의 여부, 있다면 어떠한 부분들인지 등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이후 사역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성경중심적 교육”이 의미하는 바는 각각 천차만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성경중심적 교육이라 할 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요소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물론 아래 설

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말씀과 그 적용 부분에서 사역자들이 균형을 잘 맞춰야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너무 약하면 말씀이 삶으로 녹아들기 힘들 것이요, 적용을 너무 강조하면 그저 삶의 문제들에 대한 경험적인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요소는 교육의 원칙 및 목적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육의 목적과 원칙이 성경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교육의 원칙과 목적이 성경에 그 근간을 두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가르침들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원칙과 목적이라는 것은 각 교회의 처한 상황이 다르고 교육하는 대상들의 연령 및 사회적 환경적 형편들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다양하고 풍성한 교육의 원칙들과 목적들 중에서 각각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강조하는 지점과 표현하는 방식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저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던 교육의 원칙인 “사랑과 수용”을 우리 유스그룹 교육의 원칙으로 삼았고, 그 교육의 목적은 유스 친구들의 진정한 “회심”(죄

씀이 멈추라는 데서 멈춤 줄 아는 믿음과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육의 진정한 주체를 누구라 하는지(하나님), 세움받은 교육의 대리인들은 누구라 하는지(사역자, 부모, 교회 등), 교육의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래서 지경의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워야하는 우리 인간들), 그리고 교육의 콘텍스트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본받지 말고 오히려 변화시키도록), 정확히 알고 그에 근거하여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인교회는 지금까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믿으며 이를 전 삶의 영역의 기준으로 삼는 보수적이며 복음적인 신학을 바탕으로 하여 성경중심적인 교육을 잘 실천해왔고 또한 현재도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더욱 잘하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앞서 살펴 본 성경중심적 교육의 요소들을 잘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교육사역을 되돌아보고 세속적인 영향들을 경계하며 끊임 없이 말씀으로 되돌아가려는 의지를 다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계속)

매일가정에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월 하나님의 드러냄, 예수 그리스도(요12:44-45)

기독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 그 분에 대한 추측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역사한복판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게 들고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예수님의 지혜에 모든 이가 경탄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갑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화 빛, 예수그리스도(요12:46)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실 때 두 가지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 빛과 어두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 자체였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어떤 빛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자, 무엇이 어둡고 빛인지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당연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행동들이 어두운편임을 알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황했던 것은

예수님의 빛을 통해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빛이신 예수님은 어두움을 몰아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을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 없듯이 빛이신 예수님과 거하게 될 때 어둠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의 빛을 소유하게 되며 그 빛 한가운데로 들어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수 진리의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요12:47-48)

천년만년 영원할 것 같은 인간문명이 분명히 마지막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선행도 유효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선한 말과 행동도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고개를 저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

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받을만한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죄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용서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새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고백만이 마지막 심판날 천국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토록 외치셨던 믿음의 선포가 마지막 날 진리의 준엄한 심판으로 사람들 앞에 임할 것입니다.

목 명령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요 12:49-50)

예수님께서서는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명령은 초청과는 다릅니다. 초청에 응하고 안하고는 초청을 받은 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됩니다. 하지만 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팔명자의 권위와 명령의 내용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의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달려 있는

복음에 있어서 복음전파를 초청으로만 여기기에는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명령입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복종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초청에 대해 응하지 않는 것은 단 거절이 되지만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것은 엄중한 죄가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명령에 순복하느냐 아니면 불복하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금 세상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요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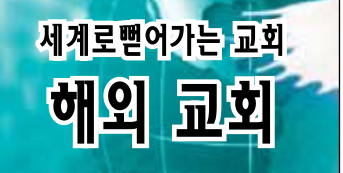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빛이셨고 소망이셨고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뻐했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 아닌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장애물이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눈엣가시였

습니다. 가르침은 논란의 대상이었고 자비는 비난의 근거가 됐습니다. 진리의 선포는 백성을 향한 선동이었고 이적과 기사는 바알세불의 증거로 보였습니다. 같은 눈에 비친 같은 예수님이었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가진 차이였습니다.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생명이요, 그의 말씀이 진리이며 천국의 소망인 것은 그가 우리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토 끝까지의 사랑(요13:1)

예수께서 하신 우리를 향한 끝까지의 사랑은 이해 불가능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할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에게 피조물의 사랑은 있으나 없으나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께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고의로 대적하고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계속될 사랑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지혜가 없지만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음을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과거와 현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3676(교무실) VIA DEI QUINTIL 32-38 00176 ROMA, ITALY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곡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n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사택기도회: 오전 5: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경고광역시 북구 분암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창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6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주일3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3676(교무실) VIA DEI QUINTIL 32-38 00176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부) Tel. (82)2-440-9000, Fax. (92)2-440-9099 서울시 강릉구 명성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3동 622-3 (158-053)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절기예배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교천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성북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88-996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일동 713-26호
수령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8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9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평화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Fax. (02)389-2235 (110-290)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삼동 137 번지	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미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사택(01)82-2-842-1968 서울 광명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882-3272-551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강남 삼성동 1418-1, (612-824)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일예배: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강정동 79-12	주산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서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동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진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www.pccov.org Tel. (604)564-5780, Fax. (604)56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apuã S. Paulo Cep 01529-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6-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저녁 7:00 주일3부예배: 저녁 9:00 7:14종교기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jin@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ón-PARAGUAY



은혜의 땅 예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6)



유 경 옥 전도사
(화가, 수곡미술선교회 회장)

C. 갈릴리 호수 주변(Sea of Galilee)

C-2 가버나움(Capernaum)

갈릴리 호수 배 안에서 히브리어로 다같이 춤추며 불렀던 ‘헤베누 살롬’이 입에서 뱀뱀 도는 가운데 일행은 이미 예수님의 주 사역지인 가버나움에 발을 디뎠다. 가버나움에는 마태의 집과 베드로 장모의 집터로 알려진 곳,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가르치신(막 1:21, 요6:59) 대 회당의 유적 등이 있으나 시간상 들리진 못했다.

16세기 이태리의 거장 베로네제(Veronese)의 “그리스도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란 작품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마8:5-13) 이곳에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귀신들린 자의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하여 귀신을 내쫓아주신 곳이었(마8:16), 낚시로 물고기 입에 있는 한 세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세금을 내게 하신 곳(마17: 24-27),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들것에 환자를 메어 지붕을 뚫고 달아 내린 믿음으로 보시고 죄를 사해주심과 동시에 고쳐주신 일(막2:4-5)……。 어찌 다 쓸 수 있을 까. 그래서 요6:24에서는 무리가 예수님의 행방을 모를 때 찾아 나선 곳이 가버나움일 정도다.

원래의 뜻은 “나움(위로)의 마을”로서 구약에는 언급이 없던 곳이지만 예수님 당시 전부터 가버

나움은 예루살렘과 아크레에서 다메섹, 거기서 바빌론으로 가는 길목의 주요도시로서 지중해 방면의 교역과 상업이 발달하여 사람들의 교류가 빈번하고 변화가였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산꼭대기로 가서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대회당이 있을 만큼 여러 민족이 교류하는 중심지인 가버나움 한복판에서 하신 것이다. 바울도 저자거리에서 자주 나간 것과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진리나 생각을 논하는 아고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변론하던 것이 아니었던가!

예수님께서는 귀신들린 자, 중풍병자 뿐 아니라 문둥병, 베드로 장모의 열병, 회당장 아이로의 딸까지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손이 오그라든 자를 고쳐주신 신적권능을 다 행하셨지만 받아들이는 이가 별로 없어 소돔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였다면 아직도 소돔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이라고(마11:23, 24) 안타까워 하셨다. 그때나 지금이나 빵과 이적에만 관심 있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괴로운 심정... 가버나움은 6세기에 쇠퇴하기 시작했다.

C - 3 타브가 (Tabga / Heptapagon)

베드로수위권교회와 오병이어교회가 있는 이곳은 ‘타브가’라는 일곱 개의 샘이란 뜻(5개는 현재도 나온다고 한다)인데 그리스어로는 Heptapagon, 히브리어로는 에인쉐바(Ein Sheba)라 한다. 우리 베드로수위권교회와 오병이어교회는 시간상 건너뛰고 팔복산으로 갔다.

C-4 팔복산

팔복산은 산상수훈 언덕이라 부른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을 발어주신 곳, 엄밀히 저주도 있었음을(6:24-26) 기억나게 하는 이곳은 저주의 그림자는 조금도 없고 낙원처럼 아름답기만 했다. 사랑과 공의의 예수님을 가난한 심령으로 보옵시다.

팔복성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유도화는 물론 여러 종류의 종려나무와 나중에 심은 듯한 유럽풍의



꽃과 각종 화초들이 만발해 아름다웠다. 갈릴리 바다를 뒤로하고 1937년에 세운 성당이 있으니 팔복교회(The Church of the Beatitudes), 아름다운 교회라는 뜻으로 프란체스코수도회의 수녀원도 있다.

튀어나온 탑 꼭대기 지붕은 둥근이지만 돌 바로 밑부터는 팔각형으로 돼있다. 내부에서 보면 팔각의 면마다 라틴어로 하나씩 복이 기록돼있다. 건물도 팔각형으로 되어 팔복을 강조했다. 중요한 점은 산상수훈 언덕, 즉

팔복산 정상에 세워진 이 교회가 갖는 의미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며 이 언덕이 마이크 없이도 많은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돼있다는 점이다. 성경의 이적을 신화로 가정하며 그에 따른 탈신화를 피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신정통주의자들이 와파야 할 곳이기도 하다.

이 언덕 밑은 바다 쪽에서 봤을 때 갈릴리 북쪽으로 보통은 바다의 가장자리가 높고 특히 거라사의 돼지 떼가 가파른 언덕을 떨어져 내리듯이 바다로 빠져 죽는 것처럼 돼있는 곳도 있는 것에 반해 이 팔복산은 바다에서부터 완만한 언덕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야구스타디움처럼 돼있어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꽤 먼 곳까지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다 쪽을 등으로 서서 팔복산을 향해 실



오병이어교회

제 설교를 하셨고 들어도 보았다는 목사님들의 체험문도 어렵지 않게 읽어볼 수 있다.

우리는 성당 내에 한 곳에 자리를 하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을 읽고 기도도 드렸다.

C - 5 디베라 (Galilee Experience)

갈릴리 선상에배부터 팔복산까지가 갈릴리 지역의 주요 순례이기 때문에 디베라 경험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참

조 4회). 디베라(요6:1; 21:1)는 헤롯 안티파스가 AD 17년에 세운 도시로서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다. 로마황제 티베리우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부른 도시이름이 바다에도 붙여진 것으로 디베라는 호수 중앙에서 왼쪽 약간 아래 동네다.

AD 44년까지는 헤롯 안디바와 아그립바 1세가 통치했고(행12:1-23) AD 59년부터는 아그립바 2세가 통치했다. AD 135년 유대인의 반란 이후 이곳에 모여 정착하며 150년에는 유대인의 자체 통치기관인 산헤드린이 세포리스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여러 랍비 학파가 생겨났다고 하는 곳, 1187년 살라딘에게 빼앗겼다가 18, 19세기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옛 유대인 교육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1948년 독립 이후 이스라엘 영토

가 됨에 따라 구 디베라는 처음엔 폴란드 등의 유대인의 유입으로 산뜻하지 못했으나 이스라엘의 4대 성지인 예루살렘, 헤브론, 사렘, 디베라가 되면서 순례객을 위해 현대식 호텔과 휴양시설을 갖춘 신 디베라가 들어서 있다. 그러나 디베라는 현재의 티베리아스 지역만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를 둘러싼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갈릴리는 디베라 뿐 아니라 갈릴리를 둘러싼 막달라, 엔 게브,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사 등도 포함된다.

순례단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끝없이 찬양을 부르며 이스라엘 땅에, 버스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을 찬미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적으로 살아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에서 따를 뿐 아니라 옆에서 손을 잡고 걷다가 예루살렘의 집(숙소)으로 돌아오는 기분은 성지순례에서만 느끼는 특별한 선물이라.

C-3-가 베드로 수위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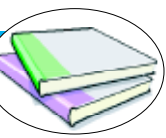
이 교회를 방문하진 않았지만 차 안에서 모두 설명을 들었고 일정보다 들어있기 때문에 참고가 되면 좋겠다.

성경적으로 볼 때 수위권교회라는 이름이 취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이드 목사님께서 들리지 않았던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본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 칭하고 수제자로 천국열쇠를 주었다(마16:18,19)고 해석해 교회가 베드로를 기초로 해 세워졌으므로 나중에 세운 교황제도(그레고리 1세 590년)도 거슬러 올라가 베드로를 그 기원으로 하며 사도권을 동일시하고, 프로테스탄트의 교회관은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같은 그 내용’을 중시한다. 즉 그의 신앙고백대로(마 16:16), 예수님 위에 그의 보혈에 의해 세워진 예수님의 몸임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신약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여 부활 후 50일, 승천 후 10일이 되는 오순절의 약속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유형교회가 생긴 것이니 ‘베드로수위권교회’란 이름은 어색한 면이 있다.

기자는 베드로에게 주신 그 믿음과 그 고백을 하계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구할 뿐이다.

(다음호에 계속)

새책소개



“하늘생각”

저자 김평옥 선교사



월드미션프론티어 국제대표 김평옥 선교사가 “하늘생각”(쿰란출판사/330쪽)을 펴냈다. 저자는 본서를 통해 주님의 섬세한 음성과 비전, 꿈을 보여주시며 인도해가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신 그 모든 은혜와 감사함을 소개했다.

본서는 제 1장 성령의 통치, 제 2장 전적인 의탁, 제 3장 온전한 헌신, 제 4장 전적인 사랑으로 나누어 있으며 제 1장에서는 성령의 사역과 부르심, 구별하심과 세우심, 성령의 비전, 모략, 직임, 은사 등 상세한 성

령의 인도하심을 적었고 제 2장에서는 ‘나를 믿으라’, ‘복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 ‘만나의 믿음’ 등 15개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방법

주님의 섬세한 음성과 비전 풀어가

과 경험들을 나눴다. 또한 3장에서는 온전한 헌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열매와 상급까

지 상세히 수록, 읽는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4장 ‘리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사역자들의 장점과 단점도 날카롭게 지적하며 “선교사들에게만

리콜대상이 있겠습니까? 교회와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자들 중에는 리콜대상이 없습니까? 장로들은? 권사, 집사들

은 리콜대상이 없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사도바울의 ‘사랑의 거울’에 자신을 비취보고 고장난 곳을 찾아 전인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역자로 거듭나자”고 강조하고 있어 사역자로 부름 받은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소명의 열정과 도전을 주고 있다.

김평옥 선교사는 한국 항공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통신을 전공하고 1986년 미국으로 이주, 실리콘밸리에서 ‘데이터링크 시스템가’를 설립하고 주간지 ‘크리스천라이프’를 창간

해 이끌어오던 중 1994년 르완다 현장을 취재하며 선교사로서의 삶을 다짐했다.

이후 그는 사업체를 정리하고 ‘월드미션 프론티어’를 설립,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콩고 등에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저서로는 “웃기는 성령님”, “불타는 떨기나무”, “무중구실링기”, “내 마음을 쏟아노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등 다수가 있다.

(이성자 기자)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 기간 : 2013년 6월 13일(목) ~ 20일(목)
7월 18일(목) ~ 25일(목)
8월 15일(목) ~ 22일(목)

| 시간 : 오후 7:30, 새벽 5:30, 오전 10: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담임 조성근목사)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818) 306-4912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본당, 부속건물